

26일 Market Index	
코스피 8411.21 (-519.09)	코스닥 851.37 (-36.44)
금리 (연이자율) 3.722 (-0.035)	환율 (원/달러) 1535.80 (-6.90)



m-커버스토리

중동전쟁·고환율·美 금리 인상론까지 하반기 ‘물가와의 전쟁’ 불안감

물가 외부변수 커져

물가 불안이 민생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외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중동전쟁과 환율, 미국 통화정책 등의 가지지 않는 불확실성이 국내 소비자물가 자극의 주 원인이다. 지난 4개월간 지속돼 온 중동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종전을 기약한다는 양해각서를 비롯, 이스라엘의 레바논 영토에 대한 공습은 계속됐다. 이달 하순에는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미군-이슬람혁명수비대 간 드론 공격·보복까지 난무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골칫거리 중 하나가 원자재·원재료의 공급이다. 석유로 만드는 제품의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못하다. 수급 비정상성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각종 수입 제품과 국내 재가공 제품의 가격이 뿔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흐르는 모습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방위군의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사르바 지역. /신화·뉴시스

다행히 국제유가가 6월 중순 이후 주춤하는 모습이 보인다.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리터(1)당 2000원 선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유가 폭등에 국내 산업계가 입은 타격은 이미 심각하다. 원자재·원재료 조달 비용이 크게 늘었고 석유류가 쓰이는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의 전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잡음은

언제든 무력 충돌로 변질 수 있고, 이에 유가의 재폭등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이 휴전 합의를 또다시 위반한 대가로, 미군 항공기가 좀 전에 이란의 미사일·드론 보관시설 및 연안 레이더기지 등에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는 원래 자리가 어디였나 싶을 정도의 초약세다. 1500원대 중반을 넘보는 환율도 언제부터인가 거부감마저 무뎠다는 형국이다. 5만 달러짜리 어느 외국산 상품을 환율 1300원일 때 65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면 이제 1000만 원 넘는 돈을 더 내야 살 수 있다. 7690만 원까지 올라 있다. 같은 상품인데 우리 돈의 가치 하락이 빛은 겉과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계란 10구 5000원’... 정부, 1조 물가대책 발표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매대 모습. 계란이 10구 가격 평균이 5000원을 넘기고 고등어, 수박, 상추 등 먹거리 물가 상승과 예년보다 빠른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 차질로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 폭염+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정부는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행사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직접 수입하는 등 하반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규모의 제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피지컬 AI’ 급부상, DP 동시발전 기회 삼성D·LGD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쟁

LTPO OLED, 배터리 사용시간 늘려 산업·군사·의료 등 활용 범위 확대 극한온도, 외부 환경서 안정적 작동



LG디스플레이의 휴머노이드 디스플레이 '플라스틱(P)-OLED' 제품. /LG디스플레이

피지컬 AI가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도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신규 수요처로 떠오를 것이라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저온다결정질리튬산화물(LTPO) OLED와 플라스틱 OLED(P-OLED) 등 차세대 기술을 앞세워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피지컬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경우 중대형 OLED 시장에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핵심 부품과 공급망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터페이스에 고화질·저전력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날 경우 OLED 채택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OLED는 피지컬 AI 시대에 적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LCD(액정표시장치)보다 얇고 유연해 자유로운 형태 구현이 가능해 로봇의 굴곡진 표면에도 적용하기 쉽

고, 높은 명암비와 뛰어난 화질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머노이드용 디스플레이는 산업 현장을 시작으로 군사, 의료, 가정 등 다양한 환경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극한 온도나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과 신뢰성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개발 중인 LTPO OLED는 전력 효율과 고주사율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업계에서는 현재 LTP O OLED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인 만큼 향후 피지컬 AI 시장 확대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2000억 자금조달 난항... 희생-청산 기로

홍플러스 운명의 일주일

법원, 30일까지 자금마련방안 요구 마련 못하면 28년만에 '파산 절차'

출범 28년 만에 파산 위기에 몰린 홍플러스가 운명의 일주일을 맞았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확보 방안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 섰다. 2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3일 홍플러스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노동조합 등에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발송했다. 법원은 홍플러스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30일까지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기한 내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홍플러스는 출범 28년 만에 기업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자금 조달을 둘러싼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홍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의 DIP 대

출 지원을 거듭 요청했으나, 메리츠 측은 MBK파트너스가 이미 보증을 선 금액에 해당하는 1000억 원만 의결했다. 메리츠는 나머지 1000억 원에 대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개인 보증 및 사채 출연을 인출 조건으로 내걸며 대주주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홍플러스와 MBK파트너스 측은 함께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금융그룹은 파산 시 사경매를 통해 대출 원리금과 이자 1조5600억원을 1순위로 가장 먼저 회수하게 되어 1조8000억원 이상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자금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는 사이 홍플러스 내부의 고통은 심화하고 있다. 이미 SSM 사업 부문(홍플러스 익스프레스)을 매각해 1200억 원을 조달했으나 체불된 직원 급여와 납품 대금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6월 임금까지 지급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1만7986명이었던 홍플러스 직원 수는 올해 4월 말 기준 1만5398명으로 감소하며 올해 들어서만 2500명 넘는 직원이 퇴직했다.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1만여 명의 직원은 물론 협력사와 입점점주 등 수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안팎에서는 정부 차원의 개입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홍플러스 한마음협의회와 협력사, 입점점주 등 1만 1480명은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으며, 홍플러스 일반노조도 본사와 공동입장문을 내고 “희생연장을 통해 시간을 가지고 질서 있게 자산정리가 이뤄진다면 부채 변제는 물론 회생도 가능하다”며 정부 도움을 요청했다. 홍플러스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법원에 회생절차 가결 기한을 9월까지 2개월 연장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진보당도 노조의 정의 투쟁에 동참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무기한 단식 돌입 기자회견에서 “법원 청산절차가 현실이 되는 순간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정부를 향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증권 간 갈등 중재,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한 실질적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메트로 한줄뉴스



▲친명 이근태, 정청래 범민주진보연대에 “당대표 출마 위한 정치적 메시지” /사진 뉴시스
▲홍준표 “호남만 별다른 산업 없어...반도체 단지 반대 안 해”

▲전주 찾은 송영길 “민주당, 전북 지선승리보단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
▲보훈차관,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운영 현장 점검

▲민주당 당권 경쟁 신경전 가열...‘코어 이탈론’까지 등장
▲오세훈, 반도체 호남 투자에 “아마추어 정치, 프로 9단 훈수”

‘환테크’ 관심 집중… “달러 보유, 헤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고환율 뉴노멀 시대

4 달러 자산 변동성 확대

외환당국 고환율 해소 의지 ‘뚜렷’ 전문가들 수익성 중심 접근 우려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것”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달러의 ‘초강세’가 유지되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달러 환전을 미루며 달러 보유고를 늘렸고, 해외 투자도 활성화 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금융자산 규모도 급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 투자는 ‘수익성’이 아닌 ‘헤지(위험회피)’ 목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70원 내린 1532.00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외환당국은 달러 강세의 이유를 ▲중동사태의 불확실성 지속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수요 ▲수출기업의 달러 선호 및 해외 투자 증가 등 수요-공급 불균형 요인에서 찾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흑자 지속에도 고환율 국면이 계속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달러당 1500원대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 지난해 대외금융자산 2.4조달러… 미국 비중 47%

28일 한국은행의 ‘2025년 지역·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총 2조 4396억달러다. 직전연도와 비교해 3448억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대외금융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내 금융자산은 1조 1492억달러를 기록해 최초로 1조달러를 넘겼다. 비중도 47.1%까지 올라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가 뚜렷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해카미’의 미국

투자 열기도 여전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총 2036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3월의 1541억달러와 비교해 두 달 만에 30% 넘게 늘었다.

기업들의 달러 선호 성향도 뚜렷하다. 지난 11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 달러예금 잔액은 543억7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의 490억2800만달러와 비교해 약 6주 만에 10% 가깝게 늘었다. 달러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했다 만기 시 원화로 돌려받는 상품으로, 달러예금 규모는 기업의 달러 선호를 반영한다.

수출 기업들도 달러의 원화 환전을 미루고 있다. 고환율 국면이 지속되면서 헤

지’ 목적으로 달러 선호가 늘었고, 원화 대비 달러 자산의 수익성도 높아져서다.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에 해외 유보 자금의 적극적인 환전을 요청했지만, 주요 기업들이 현지 재투자 등을 달러 보유 이유로 제시하는 만큼 효과는 제한적인 전망이다.

◆ 환율 1500원대 등락 지속 전망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차익을 기대하는 ‘환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달러 보유를 늘릴 땐 ‘자산증식’이 아닌 ‘자산가치 보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환율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아서다.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WM) 담당자는 “최근 기업의 달러예금 증가는 환테크 목적보다 환율 상승 리스크에 대응하고,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다”라며 “개인 차원에서는 환차익에 집중해 달러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자산가치 보전을 위한 헤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고환율’ 해소에 대한 정부와 외환당국의 의지도 뚜렷한 만큼, 환율 상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500원 중반대의 환율은 국내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라고 지적했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간을 갖고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막을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500원대에서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달러의 강세 요인이 여전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상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서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6월 FOMC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높인 만큼, 관련 우려가 완화될 때까지는 달러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만 최근 달러 강세를 추세적 강세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며, 향후 물가 안정 신호가 확인된다면 환율도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준의 매매파적 통화정책 우려가 부각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이번주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됐다”면서 “달러화 상승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국내 증시의 호조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을 꺾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은행, 모기지보험·보증 취급 제한… 대출 더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기조 영향 일각선 실수요자 부담가중 지적도

올 하반기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수단인 모기지신용보증(MCI)·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부터 대면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모기지보험·보증 가입을 제한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을 걸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차주(대출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이다. 주로 대출자의 초기 자본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의 위험을 낮

춰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은행들이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목표치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설정했다. 궁극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농협은행의 연간 목표 증가율은 0.70%다. 1~5월 주담대 증감목표는 3628억원이지만, 실제로는 1조6348억원 늘어 목표달성률 -450.3%를 기록했다.

농협은행 외 은행들은 상반기 주담대 공급을 대폭 줄였다. 하나은행은 연간 목표치 0.70%를 맞추기 위해 공급을 대폭 줄였다. 1~5월 주담대 증감 목표치를 -1조 927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목

표보다 더 많은 -1조2316억원을 기록하며 112.7%를 달성했다. 신한은행은 연간 목표치 0.695%, 1~5월 주담대 증감 목표치 -1조3254억원이었으며, 실제로 -1조 306억원이 줄었다.

우리은행은 0.71%의 연간 목표치를 부여받았다. 1~5월 주담대 증감 목표치로 -3919억원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8898억원을 줄이며 목표 대비 227.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5대 은행 중 가장 낮은 0.59%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할당받았다. 1~5월 주담대 증감 목표치를 -1조5429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실제 -1조5476억원을 감축하며 100.3%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와 투기적 수요를 겨냥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잔금

미련을 앞둔 신규 입주 예정자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MCI·MCG 제한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신규 입주 예정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권의 대출 관리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관리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번 ‘피지컬 AI 급부상…’서 계속

로봇용 OLED 가능성 적용범위 확대 전망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이미 로봇용 OLED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CES 2026에서 얼굴 위치에 13.4형 OLED를 탑재한 ‘AI OLED 붓’을 공개했다. 해당 로봇은 지정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AI 기반으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소형 로봇 콘셉트로 개발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로봇 외에도 XR 등 차세대 AI 기기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WE USA 2026’에서는 사용 환경에 따라 화면 일부가 돌출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였다. 폴더블을 넘어 유연성을 극대화한 기술로, 향후 로봇·웨어러블·XR 기기 등 다양한 피지컬 AI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디스플레이 역시 P-OLED를 앞세워 휴머노이드용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곡면 구현이 가능한 LG디스플레이의 P-OLED가 휴머노이드 로봇용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패널 중 하나로 평가된다. 차량용 탠덤 OLED 기술을 적용한 P-OLED는 높은 설계 자유도와 함께 다양한 온도와 외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내구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플라스틱 기반 OLED는 유연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로봇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어 향후 신규 시장 확대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히 화질뿐 아니라 내구성과 전력 효율, 자유로운 디자인 구현 능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휴머노이드 보급이 본격화될수록 OLED 적용 분야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K-제약바이오, 국가정책자금 수혜… ADC 신약개발 속도전

국민성장펀드 리가켄바이오 직접투자



리가켄바이오 로고.

정부주도의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가 첫 바이오 직접 투자 대상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기업인 리가켄바이오사이언스를 낙점했다. 대규모 국가 정책 자금이 마중물로 투입되면서 국내 연구개발 가치시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산 ADC 신약개발 시대를 앞당기는 기록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총 5000억원의 자본 투자를 결정했다. 2500억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지원하

고 리가켄바이오 대주주 및 국내 기관투자자가 2500억원을 투자한다.

리가켄바이오는 이번 자금 조달에 기존 보유 현금 4500억원을 더해 약 1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및 임상 실행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기술이전과 자체 개발의 상호 보완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리가켄바이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업계는 ‘국산 1호 ADC

신약’을 내놓기 위한 임상전에 돌입하고 있다.

종근당은 올해 들어 ADC 기반 항암제 후보물질 ‘CKD-703’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받았으며 미국에서는 글로벌 임상 1/2a상 첫 환자를 등록했다. 현재 비소세포폐암을 적용증으로 하고 있고 향후 유방, 대만 등으로 임상 진행 국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동아에스티는 위암, 췌장암 등 고형암 ADC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해당 신약 후보물질로 ‘DA-3501’을 구축해 올해 임상 1상 착수를 앞두고 있다. 또 자회사인 ADC 전문 애플티스가 개

발한 ‘애플티’를 적극 활용한다. 애플티는 ADC 링커 기술로, 항체 변형 없이 특정 위치에 약물을 균일하게 접합해 준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 시발터를 개발해 온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항체 경쟁력 검증 계도에 오른다. 양사 모두 자체 ADC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해 혁신신약 개발로 사업 체질을 전환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CT-P70, CT-P71, CT-P73 등 3종을 각각 계열 내 최고 약물로 개발한다는 목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첫 번째 신약개발 후보는 ‘SBE303’로 종양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넵틴-4 단백질질을 표적으로 하는 기전을 연구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물가 3% 선 사수에 1조 투입... 먹거리·생계비 부담 낮춘다

민생경제 경고등

고환율에 원자재·물류비 부담 ↑
식품·외식업계 가격 인상 확산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대폭 확대
계란 2억개·고등어 2000t 공급
공공요금 동결·LPG 부과금 면제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도 검토

국내 기업의 원자재·원재료 조달 비용이 가파르게 불어났다. 중동 사태의 영향에 더해 원화 가치의 추락에 따른 현상이다. 이에 정부가 업계의 위기 타개를 지원할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급기야 1550원 위까지 넘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어떠한 수준의 실효성을 지닐지 관심을 모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고환율·고물가에 대한 비책 마련을 부처 실무자들에게 주문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도출될 예정인데, 해외에서 부품·재료 등을 들여와 가공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부문의 지원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및 보증 등에서 지원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아울러 민생물가 잡기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최근 “먹거리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지원대상 품목 전체에 대해 할인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해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중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t)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값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액화천연가스) 부담 완화부과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비우체(이용권) 수급 가구에 대해, 기존 대비 14만7000원을 2026년



이달 2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채소류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시스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관계부처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지원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쓰겠다고 밝혔다. 재정 투입될 분야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이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총력 대응을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중동 사태의 장기화와 고환율의 고착화 흐름 속에 3% 언저리, 나아가 2%대 중후반의 물가 관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식음료와 프랜차이즈의 식메뉴 값이 줄줄이 뛰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육계(1kg)의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6632원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19%나 올랐다. 특란(30구) 가격도 7470원으로 6.6%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오름세가 뚜렷하다. 이달 삼겹살(100g)과 한우 가격은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15.3% 올랐다. 대파 소매가격은 kg당 2827원으로 작년 6월(2388원) 대비 18.4%, 수박도 한 통에 2만4292원으로 8.9% 올랐다. 수산물도 수입산 염장고등어(1손) 소매가격이 1만 803원으로 무려 26.5%나 뛰었다.

탄산음료 등의 국내 가공식품도 예외가 아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달 말부터 칠성사이다 등 12개 브랜드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올린다. 회사 측은 음료 산업은 포장재가 전체 원재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유가로 인한 물류비 부담이 겹쳐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음료수캔·맥주캔 등의 주 원료인 알루미늄을 비롯해 플라스틱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도 급등한 데 따른 인상 행렬이다. 나프타의 경우 국제거래가격이 불과 1년 사이 60% 내외로 치솟았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불러온 결과다.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는 지난달 버거 22종의 가격을 평균 2.9% 인상했다. 맘스터치는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 가격을 4900원에서 5200원으로, 써브웨이도 지난달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다.

커피업계의 인상도 잇따랐다. 메가MG C커피는 할매커피, 왕할매커피, 할매가미커피 등의 가격을 각각 200원씩 올렸고, 이디야커피는 아메리카노 스틱커피(100개입) 4종 가격을 약 15% 인상했다. 동대문엽기떡볶이 역시 내년 7월부터 주요 메뉴 가격을 7% 인прав으로 올릴 예정이다.

7월 초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에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국제유가는 폭등했고, 당시 3% 중반을 보이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그해 6월 6%대를 찍었다.

통상 원유 값이 뛰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잇따라 오른다. 석 달쯤 후엔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뛰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중동전 장기화에 따라 인플레이우려도 커진 게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환율 끌어내리기에 금리 인상이 즉효를 낸다. 물가 잡기에도 그만이다. 반면 소비가 오랜만에 회복하는 국면에서 다시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본부장은 중동발 충격과 관련해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내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이 다시 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이 커질 경우, 하반기에도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인상 압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美 금리 인상 관측에 강달러 우려

>> 1면 '하반기 물가와 전쟁...' 서 계속

여기에, 퍼지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론은 환율의 추가 상승 우려를 낳는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5월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3년 1개월 사이 최고인 4.1%에 달했다. 금리를 올릴 명분이 갖춰진 셈이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강달러 국면이 뒤를 잇는다. 국내에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고, 이 경우 원화는 더 치명적인 약세로 빠져드는 처지에 놓인다.

올해 하반기, 국내에선 이른바 '물가와 전쟁'이 전개될 공산도 충분하다. 정부가 최근 내비친 언저리에서 그 심각성이 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안정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을 비롯해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지원 등이 주요 지원 분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운용할 경제성장전략(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관리에 중점을 크게 둘 전망이다. 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크고 작은 인생의 순간들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주는

나와살아가는 보험을 만나다

한화손보 전속모델 고윤정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p>▶ 난임 진단비 보장</p> <p>난임진단비(기혼자용)(갱신형) 특별약관 (보장 종료일은 보험나이 48세까지, 보험 가입 1년간 보장 제외, 최초 1회만)</p>	<p>▶ 몸 건강을 넘어 마음 건강까지 케어</p> <p>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 정신질환) A* 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가입 후 1년 이내 50% 지급, 최초 1회만, 세부보장별 지급조건 상이)</p>
--	--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정신질환) A: 과다수면장애 [과다수면], 수면무호흡, 발작수면 및 허탈법적, 비기질성 과다수면, 비전형적 신경성 식욕부진, 비전형 신경성 폭식증, 우울 에피소드,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보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력심의회 제165928호(2025.12.08~2026.12.07)

쉽고 편하게 바로 상담받기

1833-7667



상담하기

“사람 대신 시스템이 관리”... 자동화로 ‘배전 르네상스’ 이뤄

HD현대일렉트릭 ‘청주배전 캠퍼스’ 가보니

“예전에는 사람이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시스템이 관리한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HD현대일렉트릭 청주 배전 캠퍼스의 통합관제실은 청주 공장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관제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공장 안팎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력사 차량 입차, 자재 입고, 자재창고 보관, 생산라인 투입, 완제품창고 보관, 제품 출하 등을 비롯해 공장 내 에너지 사용량과 전력 계통 등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자재는 남쪽에서 들어와 창고에 보관된 뒤 생산라인에 투입되고 완제품이 되면 북쪽 창고를 거쳐 국내외로 출하된다. 입고부터 출하까지의 물류 흐름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25일 찾아가는 청주 배전캠퍼스는 HD현대일렉트릭이 중저압 차단기 생산 체계를 다시 짰 거점이다. 기존에는 안성 생산공장, 울산 설계 조직, 부산 물류창고가 나뉘어 있었지만 청주 이전을 통해 생산과 설계, 물류를 한곳으로 모았다. 거점 통합과 자동화 설비 구축에는 28개월간 약 1161억원이 투입됐다.

생산능력은 기존 안성 공장 대비 약 70% 늘어 연 500만대 수준에서 850만대 수준으로 늘었고 2030년 1300만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비종합효율(OEE)은 기존 58% 선에서 75%까지 높아졌고, 2030년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산·설계·물류 한곳으로 모아
 구축 28개월간 약 1161억 투입**

**중저압 차단기 年 850만대 생산
 2030년 1300만대 생산 확보 목표
 설비종합효율도 90% 수준으로**

◆ 통합관제실에서 자재창고로... 입고 첫 단계부터 전산 관리

청주공장의 생산동에 들어서자 통합관제실에 보았던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자재창고였다. 협력사에서 들어온 자재는 팔레트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전산 정보와 매칭된다. 자재가 입고 장비에 안착되면 바코그리더(BCR) 장비가 QR코드를 읽고 등록 정보와 실제 자재가 맞는지 확인한다. 무게 정보도 함께 비교돼 기준을 넘거나 정보가 맞지 않으면 다시 반송된다.

자재창고에는 약 7~8일치 자재가 차 있었다. 팔레트 단위 자재는 자동창고에 들어가고 생산 3일 전 필요한 자재는 토트 박스로 소분돼 별도 저장된다. 팔레트 약 800개, 토트 박스 약 1만3000개를 보관할 수 있는 구조다.

창고 안쪽에서는 물류 셔틀이 자재를 이동시켰다. 청주배전 캠퍼스에는 자율주행 물류로

봇(AMR) 12대, 자동 케이스 처리 로봇(A CR) 10대, 물류 셔틀 20대가 투입됐다. 생산라인으로 들어가는 자재는 AMR이 운반한다. 바닥에 별도 유도선을 깔지 않고 공장 구조를 매핑한 뒤 스스로 이동하고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회피한다.

자재 관리 방식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자재를 확인하고 분류하던 영역이 컸지만, 청주 배전캠퍼스에서는 입고 단계부터 전산 정보와 설비가 맞물려 움직인다. 창고 내부 물류는 WMS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필요한 자재는 생산 일정에 맞춰 라인으로 이동한다.

◆ 차단기 생산라인 고도화... 시험·검사 공정 자동화 확대

공장은 1·2층 복층 구조다. 자재창고를 지나 북쪽으로 이동하자 기중차단기(ACB)와 진공차단기(VCB) 등 중압기 생산라인이 이어졌다. 중량물과 주문 생산 비중이 높은 제품 특성에 맞춰 시험 자동화에 초점을 맞췄고 자동화율은 65% 수준이다.

ACB 라인에서는 제품별로 필요한 부품을 담은 박스가 제품과 1대1로 매칭됐다. 작업자가 부품을 찾거나 모델별 사양을 별도로 확인하는 작업을 줄이기 위한 구조다. 이어 온-오프를 반복해 차단 성능과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 전류 계측 시험, 규격 성능을 확인하는 특성 시험이 진행됐다.

외관 검사 공정에서는 제품 QR코드를 인식한 뒤 로봇 카메라가 정면, 양측면, 상면 등을 촬영했다. 명판과 옵션이 사양과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과거 사람이 확인하던 고전압 시험과 외관 검사가 자동화되면서 휴먼 에러와 현장 위험 요인을 줄였다.

VCB 라인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차단기가 생산됐다. VCB는 대형 건축물과 AI 데이터센터의 메인 차단기로 쓰인다. 내부 핵심 부품인 진공 인터럽터(VI) 생산 구역에서는 진공도 시험과 브레이징 공정이 진행됐다. VI는 사고 전류가 발생했을 때 진공을 통해 빠르게 전류를 차단하는 핵심 부품이다. 진공도 시험 공정에는 로봇 자동화가 적용됐고 브레이징 공정에서는 부품을 쌓아 진공로에서 고온으로 가열해 내부 기밀을 확보한다.

2층에는 배선용차단기(MCCB)와 전자기폐기(MS) 등 저압기 생산라인이 배치됐다. 경량 다품종 제품을 중심으로 자재 불출부터 생산라인 투입, 완제품창고 입고까지 자동화 공정이 적용됐고 자동화율은 95% 수준까지 높였다.

생산라인을 지난 제품은 완제품창고로 이동한다. 완제품 창고도 자재창고와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이 관리한다. 박스 단위 제품과 팔레트 단위 제품



청주 배전캠퍼스 전경.



HD현대일렉트릭 배전캠퍼스 내 배전용 차단기(MCCB) 생산 라인.



생산라인 사이 자재를 운반 중인 자율주행물류로봇(AMR).

/HD현대일렉트릭

QR로 자재 입고 전산 정보 매칭 창고 내부 물류 관리도 WMS 기반 중압기 생산라인 자동화율 65% AIDC 영향, 장기공급 물량 확보 분주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성 강화 전략 울산 생산 배전반 등 청주 통합 검토

이 구분돼 보관되고, 국내와 해외 출하 물량이 이곳에서 처리된다.

◆ 데이터센터가 키운 배전 수요... 장기 공급 계약도 확대

운영 체제도 달라졌다. 영업의 수요 예측이 S&OP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생산 계획으로 이어지고, 협력사들도 이에 맞춰 부품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구조다.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생산 운영 체계까지 고도화한 셈이다.

HD현대일렉트릭이 배전캠퍼스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가 있다. 데이터센터에는 전압을 낮춰주는 배전변압기, 건물 각 동에 들어가는 고압 배전반, 낮아진 전압을 GPU 랙 등에 공급하는 분전반 형태의 제품이 단계별로 들어간다. 초고압변압기가 1~2대 들어가는 구조라면, 배전급 변압기는 전력 분산을 위해 10대, 20대 단위로 들어갈 수 있다.

납기 경쟁력은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38kV VCB는 현지 배전반 제조업체를 통해 최종 고객에게 납품되는 구조인데, 최근에는 1000대 단

위 대량 주문도 나오고 있다. 단발성 발주보다 장기공급 형태로 물량을 선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력기기 시장에서 납기와 생산 슬롯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이 배전기기에서도 같은 리스크를 줄이려는 흐름이다.

이창호 HD현대일렉트릭 배전사업본부장(부사장)은 “배전캠퍼스 구축 등 배전기기 분야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배전기기 시장은 품질, 납기, 가격 경쟁력이 모두 중요한 상황이고 긍정적인 시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보다 공격적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전기기 사업은 전력기기 중심의 실적 구조를 보완하는 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중장기적으로 배전기기 매출 비중이 약 30% 수준까지 확대될 경우 회사 전체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울산에서 생산 중인 배전반과 배전변압기의 청주 거점 통합도 검토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배전기기 부문 매출은 과거 급격한 성장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우상향해 왔다”며 “여기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가 더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배전기기 부문이 회사 성장의 한 축이자 실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이창호 HD현대일렉트릭 배전사업 본부장(부사장)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건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전부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차량 전면 유리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 표시 및 이미지·동영상 등을 구현

삼성·SK 메가 투자…李,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청사진 제시

오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수도권 집중 완화, 균형발전 추진
이재용·최태원 회장 만나 협력 논의
호남 반도체 특혜론에는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는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투자 발표가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분야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행사에선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 발표가 있고, 이후 삼성과 SK의 투자 계획이 발표된다.

이는 국토 공간 재편과 국가 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축이 돼 전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투입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앞두고 주요 기업 총수들과 연이어 만나며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과 25일 각각 최태원·이재용 회장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 전날(24일) 관훈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식화하며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삼성그룹이 1000조원대의 투자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한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낮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표를 앞둔 주말 동안 정치권에서는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대해 비판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이 '외압·직권남용' 의혹까지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직접 여러 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

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룩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글에서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다.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국회 원 구성 교착 장기화… 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오늘 각각 의총 열고 대응 방안 논의
민주, 상임위 배분 단독 처리 가능성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3주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개점휴업 중이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이 조만간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배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선출된 지 3주가 넘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이 다. 민주당은 계속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넘겨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자 조 의장도 압박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선임 명단 제출 시한을 두 차례(24·26일) 넘기자, 국회의장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안을 임의로 작성해 공문으로 발송한 뒤,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달라고



조정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병도(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국회법 48조와 45조에 따른 절차"라며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민의힘에 의견을 진술할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조 의장의 공문을 보이면서 "이게 바로 독재"라며 "소수당을 무시하고 압박하고 자기들 마

음대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저희는 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29일 여야는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할 전망이다.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배분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원

구성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도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과방위 등 주요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여야는 주말에도 법사위원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의 몫이라 주장하지만,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며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 본회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국회 전체를 불모로 잡을 수는 없다"며 "입법 독재"라는 선동 뒤에 숨지 말라. 법사위원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즉각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겨냥해 "원 구성에 관한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이 없다면, 굳이 여당 원내지도부와 따로 만날 생각이 없다"면서 "2020년,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 권력을 독점했던 문재인 정부 말기의 오만과 독주가 그토록 그리웠느냐"고 비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의장의 상임위원 임의 배정에 "야당 의원 자리까지 손대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서예진 기자

국힘 대안과미래, 장동혁에 재차 사퇴 촉구

"당·민심 직시하고 대표직 내려놔야"

국민의힘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2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6·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대안과미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 당내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계를 언급하는 편협한 리더십만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안과미래는 "(장 대표) 6·3 지방선거 거둬 오른 당 지지율을 대표 공'으로 착각하고, 참정권 침해 문제의 해법은 대표가 갖고 있다고 착각한다"며 "수치로 보면 진 건 맞다"면서도 선거 패배의 책임은 대표가 아닌 개별 의원 탓이라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하며 우리 당을 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강경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안과미래 조찬 모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며 "지금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스스로 약속

한 '원한에 부여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대안과미래는 "선거 패배 후에도 장 대표에게 성찰과 반성, 통합이라는 통 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선거 전의 입찰과 정계"는 사법부 판결로 효력을 잃었고,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심판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가 당원유지에만 매달려 폭주하면 그 당의 미래는 없다. 이는 국민의힘을 장 대표 '사당'으로 착각하지 말라"며 "당이 새롭게 나아갈 수도도록 당심과 민심을 직시하고, 약속대로 '책임'을 지키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1982



금융보국
금융으로 나라를 이롭게 한다

나라를 위한 은행

대중의 은행

서로 돕는 은행

믿음직한 은행

가장 편리한 은행

세계 속의 은행

젊은 세대의 은행

신한의 창업이념,
포용금융으로
이어지다

포용금융 2.0

2026

포용금융 지원 확대

4.5조 원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지원,
저축은행 대한 대상 확대 등

장기연체고객 재기지원

5천억 원

업계 최대 규모의
장기 부실채권 소각

차별화된 대안신용평가

제주은행 ERP banking
'DJ BANK'

'땡겨요' 이차보전 사업자 대출 등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가장 큰 장점 ‘대단지’… 가격부담에 작은평형 청약 계획”

Q 르포 | 장위 10구역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가보니

지난 26일 문을 연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견본주택은 평일 오전부터 방문객들로 붐볐다. 유닛 관람을 기다리는 줄이 이어졌고, 청약 상담 창구도 반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장위뉴타운의 대단지인 만큼 신축 아파트와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수요자의 발길을 이끌었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대우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재정비촉진지구 10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에 들어서며, 총 1931가구 가운데 10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장위뉴타운은 서울 강북 최대 규모 정비사업이다. 15개 구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3만 가구 이상 규모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단지는 6호선 돌곶이역과 가깝고, 시청역과 신사역 등 주요 업무지구로 30분 안팎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다.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이용도 편리하며, 향후 동북선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추진에 따른 교통 개선 기대감도 있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장위초등학교와 연결한 ‘초품아’ 단지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약 1.5km 안에 월곡중, 남대문중, 장위중, 석관고 등이 있으며 장위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북서울꿈의숲 등 생활·문화시설도 가까운 편이다.

견본주택 내부에는 전용 59㎡ A타입, 74㎡ B타입, 84㎡ C타입 등 3개 유닛이

마련됐다. 전용 59㎡ A타입은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조성됐다. 안방과 마주보는 구조의 작은 침실은 입주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취미방이나 서재, 드레스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59㎡ A타입에는 안방 드레스룸이나 별도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전용 59㎡ E타입은 4베이 구조에 안방 드레스룸이 포함된다.

전용 74㎡ B타입은 타워형 구조다. 거실과 주방 사이 시야가 트여 있어 개방감이 두드러진다. 주방은 수납 기능을 강화한 구성이 눈에 띈다.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벽면 수납장을 통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와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마련돼 의류와 생활용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대단지와 뉴타운 개발 기대감을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분양가 부담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결혼 후 신혼집 마련을 위해 견본주택을 찾았다는 이모씨(33)는 “아무래도 대단지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며 “장위뉴타운으로 개발되면서 주변에 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회기동에 거주 중인 예비 신혼부부 최모씨(33)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큰 평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39㎡부터 가능하면 59㎡까지 청약을 넣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상옵션까지 추가하면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견본주택 74㎡ B타입 거실.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성채리 수습기자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 총 1931가구 중 1032가구 일반 15개 구역 개발 완료시 3만가구 최고 분양가 7.5억~21.7억 수준 “국평 17억 비싸다고 인식 했지만 현 시세와 비교시 수용 가능 수준”

실제 체감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의 전용면적별 최고 분양가는 ▲39㎡ 7억5120만원 ▲46㎡ 8억8240만원 ▲51㎡ 11억1080만원 ▲59㎡ 14억6060만원 ▲74㎡ 15억9200만원 ▲84㎡ 17억6570만원 ▲101㎡ 19억4570만원 ▲114㎡ 21억7140만원 수준이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5034만원이다.

장위뉴타운 내 신규 분양 단지의 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2022년 분양한 장위4구역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최고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0억2000만

원대였다. 재작년 공급된 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의 경우 12억1000만원대에 분양됐다. 이번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17억원 넘게 책정되며 장위뉴타운 분양가 기준을 다시 끌어 올렸다.

분양 관계자는 “두세 달 전만 해도 국평 17억원대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점을 이번 청약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만 1032가구에 달한다.

현장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이번 청약 성적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서울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위뉴타운 개발 기대감, 대단지 프리미엄 등이 수요자 관심을 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근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분양이 다가온 만큼 문의가 많다”며 “방금 전에도 장위10구역 조

합원 매물을 사고 싶다는 손님이 다녀갔고 토요일에 입장을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뉴타운으로 대단지가 조성되는 데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예전에는 ‘강북, 노원에 14억원 분양가가 웬 말이나’는 반응이었지만 지금은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청약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해당지역, 7월 1일 1순위 기타 지역, 2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은 공고일 기준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은 3년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당첨자는 7월 8일 발표되며 계약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30년 9월 예정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최고금리 19.4% 청년미래적금 가입하세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3년간 50만원 납입 최대이자 93만원 13개 은행서 내달 3일까지 가입신청

정부의 청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다음 회차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로 예정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해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오는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직전 연도인 2025년도에 소득이 있어야 이번 회차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내년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에 해당하고 연 75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소득이 6000만원 이하만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은 12%의 기여금을 제공하는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기여금과 별도로 이자도 제공한다. 금리는 연 5%의 기본금리에 가입기간별 2~3%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연 7~8%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3%를 적용하고 만기까지 매달 50만원을 3년간 납입한다면 일반형은 88만원, 우대형은 93만원의 이자액을 더 받게 된다. 실질 금리는 우대형을 기준으로 최고 연 19.4%의 적금과 맞먹는다.

청년미래적금은 국내 13개 은행(국민·

신한·하나·우리·농협·수협·기업·부산·iM·경남·광주·전북·키카오) 및 우체국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시 오는 7월 24일까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소득 심사를 진행하며, 가입이 승인되면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요건은 급여이체, 카드발행 및 사용 실적, 최근 거래 여부 등을 포함하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의 경우 금번 1회차 가입 신청에서만 가능한 만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적합한 상품을 확인하고 필요 시 갈아타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안승진 기자 asj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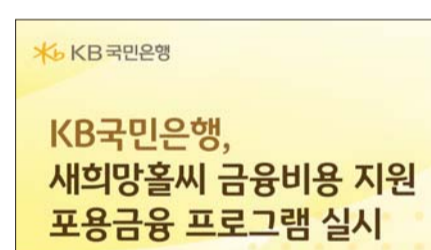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II’ 금융비용 지원

‘행복 희망프로젝트’ 일환

KB국민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새희망홀씨II 금융비용 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KB금융그룹의 ‘KB국민 행복희망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 3월 ‘KB새희망홀씨II’ 상품 신규대출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한 데 이어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채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은 대출금리 7%를 초과하는 이자 부담분을 지원해 고객의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



객은 대출잔액을 줄이고 향후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함께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KB국민은행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II로 전환한 고객 가운데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고객이다. 지원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 고객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이번주 전국 14개 단지 8167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성북 ‘장위푸르지오마크원’ 등 청약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816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6541가구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 경북 경산

시 중산동 ‘펜타힐즈더블유1단지’, 경남 김해시 신문동 ‘김해신문센트럴아파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일원에서 ‘김해신문센트럴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84~128㎡ 총 1379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약 55만㎡ 부지에 주

거단지를 비롯해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남해제2·3고속도로지선 등을 통해 부산, 창원 등 인근 도시로 이동이 수월하며 롯데아울렛, 농협하나로클럽, 롯데시네마 등 상업시설이 근거리로 위치한다. 지난해 9월 개교한 신문초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모텔하우스는 경기 성남시 동원동 ‘e편한세상분당파스트빌리지(A1블록, 신혼희망타운)’, 경남 김해시 내동 ‘트리본김해’ 등 2곳이 오픈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SCoRE AI’ 구축 완료·가동

신한금융그룹이 그룹 공동 내부통제 플랫폼인 ‘신한 책무이행관리시스템(SCoRE AI)’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한 ‘SCoRE AI’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SCoRE AI’는 AI가 수많은 소관부서의 점검 활동을 요약·분석해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인 임원의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뒷받침한다. ▲임원별 책무 항목 점검 및 증빙자료 자동 검증 ▲소관부서 점검 내역 요약·분석으로 충실도 객관 평가 ▲

금융사고·제재·법령 개정 등 외부 이슈 주 기적 수집·브리핑을 토대로 임원이 지시 사항을 등록해 점검 항목에 반영하는 실효적 관리 체계를 갖췄다.

그룹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AI 에이전트 확장도 용이한 인프라 기반으로 구축됐다. ▲그룹 자체 서버에 직접 구축해 보안성 및 범용성 동시 확보 ▲내부 데이터(책무구조도·점검내역·내규 등)와 외부 데이터(법령·감독당국 공시뉴스 등) 통합 분석 ▲최신 규제 환경 반영 및 대응 방향 제시 등을 통해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AI 활용 기반을 갖췄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차, 노사갈등·품질논란 겹쳐 미래사업 투자·브랜드 신뢰도 '흔들'

임협 결렬... 노조 파업권한 확보
하청노조 교섭 등 부담 가중 전방
소비자, 일부 차종 분쟁조정 신청

현대자동차가 원청 노조의 파업 수순과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인 용에 따른 노무리스크, 일부 차량 결함에 따른 차주들의 불만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 등 동시다발적 악재에 휩싸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제11차 교섭에서 임협 결렬을 선언했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통해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10.5%를 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현대차 노조의 성과급 요구 목소리는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또 현대차 노조는 휴머노이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바로 완전 월급제 도입 요구다. 향후 휴머노

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도입될 경우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하락을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이라는 인구학적 문제점에 대응은 물론 생산 효율화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경쟁에 나서고 있다.

사측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비롯해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식을 열고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8500개 협력사를 둔 현대차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도 진행해야 한다.

현대차는 사내 하청 생산직은 물론이고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 경비 등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하청 노조를 이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 요구에 참여한 10개 지회의 '일괄 교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이 외주를 맡겨 온 급식, 청소 등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잇달아 인정되면서 기업의 교섭 부담이 전방위로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및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 노조들과 함께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차는 원청과 하청에 이어 소비자와의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 그랜저와 쏘나타 등 일부 차량에서 에어컨 냉매 누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주들은 차량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 26일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R1234yf 냉매가 적용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이다. 신청인 측에 따르면 신청 차량 가운데는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 K5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이같은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 현대차 일부 소비자들이 '에바카루' 논란이 확대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그룹, 'K-AI 얼라이언스' 생태계 확장

'유나이트' 행사... 60여명 참여
유영상 AI 위원장 "멤버사 지속 확대"

SK그룹이 인공지능(AI)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SK AI위원회는 AI 기업 연합체인 K-AI 얼라이언스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행사인 '유나이트(UNITE) 2026'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7개 기업으로 출범한 K-AI 얼라이언스는 현재 AI 반도체,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 AI 전 분야를 아우르는 50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성장했다. 회원사의 35% 이상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

SK는 올해부터 K-AI 얼라이언스 운영 주체를 SK텔레콤에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AI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맞춰 회원사 간 협력과 글로벌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인 'K-AI 얼라이언스 2.0'도 공개했다.

K-AI 얼라이언스 2.0은 기존의 네트워크 중심 협력을 넘어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 AX 등 주요 멤버사와의 공동 기술 개발, 사업 검증(PoC), 신규 서비스 발굴, 글로벌 고객 확보 등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협력 기회를 확보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과 중동, 동남아 등에서도 정례 프



유영상 SK AI 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된 K-AI 얼라이언스의 연례 행사인 '유나이트 20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SK

그램을 운영해 회원사의 해외 투자 유치와 사업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유영상 SK AI 위원장을 비롯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관계자, K-AI 얼라이언스 회원사, 글로벌 벤처캐피탈(VC), AWS 등 빅테크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AI 투자와 기술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회원사 기업설명회(IR), AI 산업 병목 현상과 AI 반도체 산업 전망 등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회가 진행됐다.

유영상 SK AI 위원장은 "AI 산업은 단일 기업이 독자적으로 모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지속적인 멤버사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투자자와 빅테크가 가장 먼저 찾는 글로벌 AI 생태계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고객 맞춤형 주거 솔루션 시장 공략

모듈러 주택 'LG스마트코티지' 선보
"새로운 고객 경험 제공해 나갈 것"

LG전자가 AI 기술을 접목한 모듈러 주택 사업 확대에 나섰다. 주거 공간은 물론 기업 연수원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공간 수요를 겨냥해 제품 선택지를 넓히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객 맞춤형 주거 솔루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오는 29일 모듈러 주택 'LG스마트코티지'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고객 맞춤형 주거 솔루션 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LG스마트코티지는 AI 가전 및 냉난방공조 기술을 집약한 모듈러 주택이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20평대 단층형 모델인 'MONO Core 72(면적 72.9㎡, 약 22평)'와 'MONO Core 82(면적 82.1㎡, 약 24평)'다. LG전자는 그간 축적한 고객 의견과 시장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모델 대비 사용 면적을 넓히고 평당 가격을 낮췄다.

두 제품은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된다. MONO Core 82는 MONO C



'LG 스마트코티지' 신제품. /LG전자

ore 72 대비 한쪽 방을 확장해 보다 넓고 여유로운 생활 공간을 제공한다.

신제품은 첫 20평대 제품으로 기존 모델 대비 공간이 넓어 주거뿐 아니라 기업 연수원 및 레저·숙박 시설 등 상업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또 고객이 공간별 가구와 수납 구성, 가전과 IoT 기기, 평면 배치, 외장재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 체계를 세분화해 사용 목적에 맞게 꾸밀 수 있다. 특히 공간을 모듈화해 주변 환경에 맞게 현관 방향이나 지붕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부에는 AI 홈 허브 '씽큐 온'을 비롯해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 스위치 등 IoT 기기들과 시스템에어컨, 콘덴싱 보일러

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고객은 '씽큐 온'을 활용해 일상 언어로 AI와 대화하며 주거 공간 내 다양한 기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또 AI 가전, 환기 솔루션,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옵션을 추가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구현할 수도 있다.

LG전자 스마트코티지 컴퍼니 조연우 대표는 "신제품은 더 넓어진 공간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거는 물론 기업 연수원 및 레저·숙박 시설 등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를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주거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맞춤형 공간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그룹, '한화 내일아카데미' 개설

고용노동부 'K-뉴딜 아카데미' 동참

한화그룹이 조선·방산·정보통신기술(ICT) 등 주요 계열사의 현장 경험을 활용해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선다.

한화그룹은 청년 직무 역량 강화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형 교육 프

로그램 '한화 내일아카데미'를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한화내일아카데미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직무 역량 강화·취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 모두 476명을 선발하며 교육 분야는 조선 공정관리, 해양품질교육, 선박엔진 부품 가공, 방산 실무 기초, AI 코딩 및 데이터 분석, 마케팅 실무, 건설 실무 등으로 구성된다.

각 직무 특성에 맞춘 실무 교육과 함께 현장 체험, 취업 컨설팅 강의도 포함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원관희 기자 wkh@

ESG경영·신사업 투자... 성장세 이어간다

K-산업 돋보기

③ 고려아연 '최대 실적 기대'

배터리 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 강화

고려아연이 공급망 다변화로 역대 최대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에도 외부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잡음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지난 3월 개최된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 과정에서의 지배구조를 지적하는 등 경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 회장 개인 투자와 고려아연 자금 집행의 연관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영풍은 최 회장이 개인 투자한 회사에 고려아연이 시차를 두고 사모펀드를 통해 회사 자금을 연이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최 회장의 영향력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외부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실적과 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평가인 '퀄리티 스코어'에서 9개월 연속 전 영역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ISS 퀄리티 스코어는 매달 최신 공시 정보와 산업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의 ESG 각 부문의 역량을 비교하는 지표다. 1등급은 정책 수준과 리스크 관리 영역이 각 부문 최상위권이다.

또 '다우존스 최상위기업 지수(DJBI

C) 아시아퍼시픽 지수'에 국내 비철금속 업계 최초로 편입되기도 했다. '2025 기업 지배구조보고서'에서 핵심지표 15개를 모두 이행하며 준수율 100%를 달성한 바 있다.

이처럼 고려아연은 단순한 제련기업을 넘어 자원순환과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윤범 회장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고려아연이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급망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경우 경영 부담은 확대될 수 있다.

고려아연은 배터리 소재와 자원순환 사업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규 사업이 예상만큼 빠르게 수익화되지 못할 경우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세계 최대 금속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이 공급을 확대할 경우 글로벌 금속 가격은 불안정해 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신사업 투자와 생산 경쟁력 강화, 친환경 경영을 병행하며 장기 성장 전략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며 "과거 제련기업이 금속 가격 사이클에 실적이 흔들렸다면 현재의 고려아연은 귀금속과 희소금속, 리사이클링 사업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려아연의 산업적 위치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K-주차 표준’ 만든다... AI 통합관제로 스마트시티 공략

혁신기업 돋보기 대흥정보 박기범 대표

제조사 달라도 주차장 통합 관리 ‘이기종 통합’ 특허로 윈스톱 제공 27개 지자체 공영주차장서 운영 AI 차량판별 관제 20여곳 상용화 남양주시 출차시간 27.9% 단축 민간·글로벌 스마트주차 시장 공략

서울서초구가 구축한 주차포털에 들어가면 구내에 있는 31곳의 주차장 뿐만 아니라 이들 주차장의 실시간 현황을 매우 혼잡·혼잡·보통·여유 단계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사전 결제, 미납 요금 결제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신청 등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정 업체 솔루션을 막기 위해 주차장의 기계장비 등을 4-5개 회사가 공급해 설치하고 있는게 일반적이다. 이때문에 각각 다른 회사의 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운영·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



박기범 대흥정보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본사에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이선(앱) 따로, 주차단속 앱 따로, 행정업무 등을 위한 앱 따로 등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게다가 차량 출입과 출차, 주차료 정산, 제납액 징수, 수익금 관리 등을 하는데 사람의 손도 적잖이 들어간다.

메인비즈(경영혁신) 인증등을 받은 스마트 주차 솔루션 전문기업 대흥정보는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주차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박기범 대흥정보 공동대표는 28일 “2016년에 설립한 대흥정보는 단순 번호판

인식·요금정산 소프트웨어 업체를 넘어 AI 기반 차량 행동 분석·실시간 데이터 집계·클라우드 통합관제를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낸 ‘도시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흥정보의 핵심 제품인 iNerv 시리즈(통합주차관제·모바일·정산·비대면 자격 확인)는 서초구를 비롯해 현재 전국 27개 지자체 공영주차장이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 AI V-Square(AI 차량판별·영상 분석 통합 공영주차장 관제 솔루션)는 서

을 동대문구를 포함한 20여개 현장에서 상용화돼 있다.

이는 대흥정보가 보유한 국내 유일의 ‘이기종 주차장비 통합 프로토콜’ 특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박 대표는 “주차 기계장비와 관련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현재 국내 시장은 연간 약 2800억원 규모다. 공공분야에서 스마트주차장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이 우리 회사다. 지금은 공공분야 추가 확장과 함께 민간분야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흥정보의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이용해 공공주차장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약 10% 수준이다. 10억원 가량인 시스템 구축 비용과 유지 관리비 등을 지불할 능력을 갖춘 지자체는 사실상 대도시권이 대부분이다.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공공주차장 대부분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은 입차보다 출차가 핵심이다. 빠르게 정산을 하고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의 통합시스템을 사용하면 사람이 관리할 때보다 주차 시간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대흥정보의 iNerv를 도입한 경기 남양주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 시스템 도입 이후 출차 시간이 평균 27.9% 단축됐다. 또 연료비 절감 편익은 연간 약 2억6000만원, 대기오염 절감 편익은 연간 3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흥정보는 지난해 18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설립 이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시장 성장률(연평균 약 12%)보다 높은 2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주차장 관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도시가 숨쉬는 방식을 바꾸는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 공공 스마트주차를 넘어 도시 모빌리티 인프라 전체를 재설계하는 등 스마트시티에서 핵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흥정보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체비도 갖췄다. 2030년 기준 글로벌 스마트주차 시장은 약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흥정보가 ‘K-스마트주차 시스템’으로 세계 시장을 노크할 날도 머지않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고유가 지원금, 골목상권 매출 10.6% ↑

중기부, 소상공인 16만개 매출 분석

총 6조원 가량에 이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상권 매출을 11% 가깝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경남, 대구, 인천 등에서 매출 증가 효과가 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16만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올해 5월18일부터 6월7일까지 3주간 전국 사업자의 매출 변화를 전년 동기과 비교·분석해 2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이후 이들 사업자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과 비교해 10.6% 늘었다. 지급하기 전 주에 비해선 2.7% 증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 두에게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경남(14.7%), 대구(14%), 인천(13.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증가폭이 가장 낮은 제주 역시 5.2%의 매출 증가를 보이며 전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소상공인 주요 업종별의 매출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물가와 밀접한 소매업(16.4%)과 교육서비스업(11.2%)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업은 4.6%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전통시장에서도 뚜렷한 매출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부산 동구 수정전통시장(123.7%), 강원 동쪽바다중앙시장(114.8%), 경남 삼천포중앙시장(114%)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온실가스 9.5% 감축

15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LX하우시스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을 전년보다 9.5% 가량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LX하우시스는 지난 2012년 인테리어 업계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 15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환경 분야에선 시설 개선 및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량 관리 활동 등에 힘입어 의미 있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LX하우시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0만 2737톤(t)으로 전년(2024년)의

11만3473톤보다 약 9.5% 줄었다.

사회 분야에선 기존의 동반성장활동에서 한 단계 진화해 협력사의 환경경영 개선을 돕고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관리를 시행했다. 사내의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체 인권 정책을 공개하고 고충처리 채널을 정비하는 등 인권경영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지배구조 분야에선 전사적 반부패 위험 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준법경영 시스템을 강화했다. 더불어 ESG위원회의 역할을 환경·안전 중장기 목표 및 탄소중립 등 주요 ESG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승인’ 기구로 권한을 확대해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김승호 기자

BYD, 전기 중심 PHEV로 韓시장 확대

부산모빌리티쇼서 씨라이언 6 공개 DM-i 기술로 전기차 같은 주행감 일상 주행 80% 이상 전기모터 활용

BYD가 기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기차 중심의 새로운 전동화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최근 국내 시장에 공개한 PHEV 시스템 DM-i(Dual Mode Intelligent) 기술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BYD코리아는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부산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에서 PHEV 모델 BYD ‘씨라이언 6 DM-i’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DM-i의 핵심은 ‘전기 중심(Electric First)’ 설계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가 엔진을 중심으로 모터를 보조 동력으로 활용하는 반면, DM-i는 대용량 배터리와 고성능 모터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주행을 전기로 수행한다. 실제로 일상 주행의 80% 이상을 엔진 개입 없이 전기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어 전기차와 유사한 주행감과 높은 경제성을 제공한다. 과거 PHEV이 높은 가격, 라인업 부족, 충전과 주유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된 BYD 씨라이언 6 DM-i. /차원정 기자

를 병행했던 번거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다.

주행 상황에 따라 동력 방식도 자동으로 최적화된다. 배터리 잔량이 낮으면 엔진이 발전기 역할을 하는 직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해 모터를 구동하며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급가속이나 고속 주행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하는 병렬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돼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 고속 정속 주행에서는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구동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처럼 다양한 구동 방식을 상황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 DM-i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성능도 뛰어나다. DM-i 차량은 한 번 충전과 주유만으로 10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구현했으며, 자체 개발한 전기모터는 97.5%의 높은 효율을 달성했다. 또 한 자체 개발한 ‘샤오윈’ 터보 엔진은 열 효율 40.12%를 기록해 일반 가솔린 및 디젤 엔진보다 높은 효율성을 확보했다.

기존 PHEV의 약점으로 꼽히던 충전 문제도 개선됐다. DM-i는 DC 급속충전을 지원해 전기차 수준의 충전 편의성을 제공하며, 3.3kW V2L 기능을 통해 외부 전자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BYD는 2008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PHEV인 F3DM을 출시한 이후 18년간 하이브리드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누적 주행거리 300억km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았다.

/왕성운 기자 ysw@

LS일렉트릭, 美 전력사업 확장 속도

2500억 투입해 현지 생산거점 확대

LS일렉트릭이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핵심 생산 거점인 유타 사업장 증설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북미 배전기기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현지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LS일렉트릭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시더시티에 있는 현지 공장 ‘LS일렉트릭 유타’에서 증설 기공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총 25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증설은 기존 1만3223㎡(약 4000평) 규모 생산시설에 6만6115㎡(약 2만 평)를 추가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 내 하이엔드 전력 솔루션 생산 기반 확보다. 신규 공장

이 완공되면 LS일렉트릭 유타의 배전반 생산능력은 연간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북미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맞춰 현지 공급 능력을 키우고 납기 대응력도 높일 수 있게 된다. LS일렉트릭은 북미 배전사업 강화를 위해 2022년 630만달러(약 77억 원)를 투자해 미국 배전반 제조업체 MCM엔지니어링Ⅱ를 인수했다. 이후 지난해 초 1차 증설을 통해 제2공장을 준공하고 생산능력을 3배로 늘렸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며 현지 사업 기반을 다졌다. /왕관희 기자 wkh@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내달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개인정보 논란은 여전

휴대전화 개통과정에 안면인증 적용 관리 공백·제도적 사각지대 우려 정부 “안면정보 인증 결과만 보관”

정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가 내달 시행된다. 휴대전화 명의 도용과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공백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제도의 시범운영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대폰 개통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 동의를 받아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국가기관·공공기관 보유 정보나 신분증 사진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시스

시작된 시범운영이 한 차례 연장된 끝에 약 6개월 만에 공식 도입되는 것이다.

안면인증은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패스(PASS) 앱에서 촬영한 얼굴을 실시간으로 신분증 사진 등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 약 43개의 대면·비대면 가입 채널에서 활용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우려는 여전하다. 생체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고, 다른 인증 체계와 결합될 경우 개인 식별 위험도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통신 유통 현장에 인증 절차가 추가되면 대리점 단말, 인증 시스템, 결과 보관 서버 등 관리해야 할 지점이 늘어 보안상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얼굴정보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며 정책 폐기를 요구해왔다. 이지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악용 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안면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동의는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안면정보 자체는 저장되지 않고 인증 결과만 보관된다는 입장이다. 대체 인증 수단으로 주민등록초본 제출 또는 행정안전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활용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장에서 관리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브리핑에서 안면인증 제도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우선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외국인 신분증으로 넓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발급·관리 주체가 달라 안면인증 시스템 연동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확인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령 정비까지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법제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즉, 안면인증 제도는 오는 7월 현장에 바로 적용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포폰 적발 건수가 늘고 있어 본인확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실제 현장에서 고객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카카오 노조, 오늘 ‘로그아웃데이’ 강행… 갈등 장기화

성과급 보상 협상서 접점 못찾아 5개 법인, 최대 3000명 참여 전망 카카오, 서비스 안정성 최우선 대응

카카오노조가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사측과의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 예정된 ‘로그아웃데이’를 강행한다. 사측은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노조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29일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펀드, 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한다.

로그아웃데이는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 또는 오프를 사용해 업무를 중단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



민주노총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조합원들과 연대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광장에서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의 집단행동이다. 지난 10일 진행한 반일 파업보다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형태다.

카카오 본사 노조 조합원은 약 2500명 규모다. 업계에서는 계열사를 포함한 참여 대상이 최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참여 인원은 당일 집

계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번 집단행동에서도 별도의 오프라인 집회나 기자회견은 열지 않을 계획이다. 향후 추가 대응 여부는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

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3~14% 수준인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해당 요구가 경영 부담이 큰 수준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 노사는 지난 5월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이후 두 달 가까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로그아웃데이가 전일 업무 중단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서비스 운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반일 파업에는 본사 기준 약 1000명, 5개 법인 기준 약 1500명이 참여했지만 주요 서비스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동화된 운영 체계와 비상 대응 조직이 가동되면서 이용자 불편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에는 참여 규모가 확대될 가

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하루 동안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예기치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응 속도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는 서비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와 플랫폼 서비스는 상당 부분 자동화돼 있어 단기간 집단행동만으로 대규모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인력이 줄어드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조직 분위기와 인재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노사 모두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AI 시대 속 직장인 생존전략… 美 ‘이동’ 韓 ‘버티기’

오늘 AI

이직·해고·창업 관련 검색 데이터 美 48% 늘어… 고용불안 대비 적극 韓 37% 줄어… 위험보다 유지 성향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구조 재편으로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직장인들의 대응 방식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해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 탐색이 크게 늘어난 반면, 한국에서는 이직과 창업 관련 검색이 감소하며 현 직장에 머무르려는 분위기가 짙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 블라인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과 미국 이용자의 이직·해고·창업 관련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관련 검색량은

55만5642건에서 82만2608건으로 48%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48만6348건에서 30만5879건으로 37%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4년간 미국 검색 278만8629건과 한국 검색 158만865건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흐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검색량이 증가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감소 폭도 점차 확대됐다.

미국에서는 이직 관련 검색이 31만 6879건에서 44만9261건으로 증가했다. 이력서 작성과 추천 채용, 헤드헌터 등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한 정보 탐색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해고 관련 검색도 같은 기간 22만5930건에서 36만4930건으로 60% 이상 늘었다.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퇴직 보상’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검색도 함께 증

가해 고용 불안에 대한 대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서는 이직 관련 검색이 36만 8962건에서 19만8319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해고와 구조조정, 희망퇴직,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검색은 2023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를 나타냈다. 창업 관련 검색 역시 1만1764건에서 7135건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국내 채용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이직을 시도하기보다 현재 직장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블라인드 관계자는 “미국 직장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적극 탐색하는 반면 한국은 현 직장에 머무르며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 심리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LG U+,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LG유플러스는 지엔씨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사는 경기도 파주시에 건설 중인 파주 AIDC에 공급되는 비상용 발전기를 포함해 향후 AIDC 관련 인프라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핵심 설비를 적기에 대응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증설 및 확장을 고려해 설비 표준화 협력도 이어간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비상 발전기 등 전력 설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설비 발주 후 수개월 내 공급된 반면 최근에는 2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AI 인프라는 고도의 안전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 중단과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AIDC에 최적화된 비상용



지난 24일 서울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정승경 LG유플러스 AIDC 사업담당(왼쪽)과 안병철 지엔씨에너지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발전기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인프라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설비 수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부실기업 퇴출·승강제 도입... 코스닥 신뢰 회복 나선다

시총 약 479조, 코스피 6.5%에 불과
부정거래 등 시장 신뢰도 떨어뜨려
AI 반도체 등 성장기업 유치 필요

지난 30년간 코스닥 상위 100대 기업이 앞다퉀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갔고, 그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위 기업 간 시가총액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은 지난 1996년 '한국의 나스닥'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엔비디아·알파벳·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이 이끄는 나스닥과는 달리 사실상 '코스피 2부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 상장사 CEO들도 "시장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울러 코스닥이 성장기업 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으려면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기대감으로 그쳐선 안 되고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코스닥 상위 기업 시총, 코스피의 11%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478조 7740억원으로 코스닥 시총 최초 집계일인 1997년 1월 3일(7조2950억원) 대비 66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시장 저변도 크게 넓어졌다. 개장 초기 376개 수준이던 종목 수는 현재 1822개로 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거래 규모 확대 속도는 더욱 가팔랐다. 관련 통계 최초 집계 연도인 1997년 하루 평균 40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은 올해 평균 13조 7340억원대로 34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시총 기준 코스피의 6.50%에



ChatGPT로 생성한 '코스닥지수 상승을 기대하는 게임(개인 투자자)들' 이미지.

그친다.

코스닥 상위 기업들로 이를 압축해봐도 시총은 20년째 코스피의 10분의 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코스닥 상위 100사 시가총액 합계는 281조원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위 100곳(2549조원)의 11.03% 수준이다. 이는 2002년 11%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 중이다. 현재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18조원)은 코스피에선 43위 수준이다.

미국 나스닥은 다르다. 미 나스닥 100대 기업의 시총 합계는 한국 코스피에 대응되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100대 기업 시총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미국 증시 전체에서 시총 1~4등인 엔비디아·알파벳·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를 주름잡는 IT 기업들이 모두 나스닥에 포진해 있다. 미국 주식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나스닥 기업이다.

우량기업들이 떠나면서 흔히 먹게 없

는 시장이 됐다. 엔씨소프트, 카카오, 셀트리온, 엘앤에프 등 굴직한 주주들이 잇따라 코스피행을 택했다. 최근에는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까지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우량 기업들이 코스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의 돈이 코스피 시장에 몰리기 때문이다. 토스증권에 따르면 올해 개인투자자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 가운데 약 83%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뉴욕타임즈(NYT)는 한국에서 일부 고령층이 퇴직연금과 보험 해약금을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닥 전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상황을 악화시킨다. 코스닥에 건설한 기업들도 많지만, 이른바 '작전세력'이 주가를 부양시켜 '한탕' 하고 빠지는 용도로 쓰는 부실 기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98건 중 66건(67.3%)이 코스닥에서 발생했다. 코스피 28건(28.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거짓 정보나 풍문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부정거래의 경우 코스닥 종목이 16건으로 코스피(2건)의 8배에 달했다.

코스닥은 전통적으로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었지만, 실망한 개인들은 이달 들어 1조원 넘게 팔아치우며 시장을 떠나고 있다.

◆중미 기업 퇴출, 시장 활성화 정책 마중물 될까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러 사교가 생기고, 그런 모습이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 가능성을 보는 기술 중심 기업들이 상정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상장 허들은 낮춰야겠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체가 없는 기업들은 최대한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외국인·기관 자금 유입 기반을 넓히기 위해 코스닥 승강제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출시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역시 성장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카드로 거론된다.

부실기업 퇴출 강화는 7월부터 시행된다. 코스닥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지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된다.

코스닥 상장사를 '프리미엄·스탠다드' 등 단계로 나눠 구분하는 이른바 '승강제'는 7월 1일 30주년 행사에서 방향성이 제

시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자문단 논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9~10월 중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코스닥 '프리미엄' 세그먼트 편입 기업이 70곳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승강제의 성패는 지수 편입, 기관·연기금 수급,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유인을 얼마나 마련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대표 성장기업인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시장 논의가 반복되는 만큼, 우량기업이 시장에 남아 있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추진 중인 코스닥 승강제를 출범시켜 코스닥 시장 내 '프리미엄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오는 마중물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벨리온·퓨리오사AI 같은 차세대 AI(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을 코스닥으로 유도하는 것도 성장기업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과제로 꼽힌다.

한편, 코스닥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상장사 공개가 핵심이다. 우선 7월 1일 1000원 미만의 주가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 상장 폐지하도록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거래소는 또 같은 달 2일부터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에도 본격적으로 시동 건다. 분기 보고서를 제외한 2개 연속 정기보고서에서 PBR이 업종별 하위 20%인 상장사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새도약기금, 채권 1조 매입 장기연체자 11만명 '숨통'

45곳과 1조314억 매입 협의
추심 중단·취약계층 채무 소각

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을 매입하면서 약 11만명이 장기간 이어진 추심과 연체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들과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열고 전수 조사 결과와 매입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 167곳 가운데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보유한 곳은 167개사, 전체 연체채권 규모는 5조 9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인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46개사가 보유한 1조 572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총 1조 314억원 규모 채권에 대한 매입 협의를 마쳤다.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을 포함한 4개사의 채권 1조 56억원은 이달 말, 나머지 41개사의 258억원은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롤러코스피' 만든 반도체 풀림... 서킷브레이커 역대 최대

레버리지 ETF 확산, 변동성 키워
삼전닉스 실적·FOMC에 촉각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이후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관심이 7월 실적 시즌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옮겨가고 있다. 6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풀림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확산이 시장 변동성을 키워다면, 7월에는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가이던스), 미국 통화정책이 증시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레버리지가 키운 '쏟림 장세'... 서킷브레이커도 역대급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하루 4% 이상 등락한 날이 8거래일에 달했고, 이 가운데 3거래일은 하루 변동폭이 8%를 웃돌았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장중 97.78까지 치솟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 안정장치도 연이어 작동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세 차례 발동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고,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발동했다. 특히 지난 23일 급락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뒤 25일에는 마이크로 호실적에 힘입어 매수 사이드카가 발



6월 롤러코스터 장세를 지나 7월 실적 시즌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국내 증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동했고, 하루 만인 26일 다시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작동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 안전장치가 발동되는 이례적인 장세가 이어져 그야말로 예측 불가의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코스피)' 상태가 됐다.

증권가는 이번 변동성을 단순한 대외 악재보다 반도체 풀림에 따른 수급 왜곡에서 찾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승과 하락 모두 증폭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주식 관련 ETF는 지난해 1월 536개에서 올해 5월 말 615개로 늘었

고, 같은 기간 레버리지 ETF도 43개까지 증가했다.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최근 하루 거래대금이 운용자산을 웃돌며, 상장 이후 평균 매매 회전율이 130%에 육박하는 중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풀림현상 및 그에 따른 수급 변동성 확대가 오늘의 급락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애플 가격 인상, 오픈AI IPO 연기설,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 등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의 변동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오늘 하락의 본질은 반도체 풀림 포지션의 퇴각기"라고 진단했다. /허정윤 기자

전기 1%만 아껴도 캐시백... 주말 낮 사용하면 요금 할인

기후부, '슬기로운 전기생활' 확대
에너지캐시백 기준 3%→1%로 완화
절감률 따라 최대 120원/kWh 차감
피크시간 절감 땀 500원/kWh 보상
주말 낮 스마트가전·전기차 할인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변화한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소비 효율화 대책을 대거 내놓았다. 앞으로 전기를 아낀 만큼 요금을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이동시키기 위한 대국민 인센티브 제도가 대대적으로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슬기로운 전기생활' 확산을 위해 7월 1일부터 다양한 소비자 혜택 사업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의 확대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 지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열린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준을 기존 '3% 이상 절감'에서 '1% 이상만 절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췄다. 지급 단가 역시 대폭 인상돼, 절감률 구간에 따라 1킬로와트시(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20원/kWh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평일 저녁 피크 시간대(17시~20시)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아끼면 파격적인 보상이 주어진다. 7~8월 두 달간 원격검침시스템(AMI)이 설치된 가구를 대상으로 직전 2개월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보다 전력을 절감할 경우, 1kWh당 500원의 캐시백

(지급한도 1만원)을 돌려주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반대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해 전력이 남는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11시~14시)에는 '전기를 쓰면 혜택을 주는' 역발상 정책이 추진된다. 가정에서는 오는 9월과 10월 두 달간 '스마트가전 캐시백'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SmartThings)나 LG전자(ThinQ) 앱에 등록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에 사용하면 1kWh당 100원의 캐시백을 받는다.

산업계와 전기차 이용자 역시 낮 시간대 전력 소비 유인 혜택을 받는다. 9~10월 두 달간 산업용(을) 전력 소비 기업들은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 전력량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기차 이용자 또한 동 기간 주말 낮에 공공 급속충전기나 자가소비용 충전소 등에서 충전 시 요금 할인을 받는다. 아울러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전기 사용량을 늘려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플러스디알(DR)'

제도를 활용하면 지정 한국전력 충전소 기준 봄·가을철 토요일과 공휴일 낮 시간에 최대 12%까지 추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충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전력 서비스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39종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구축했다. 플랫폼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출산가구 등의 전기요금 복지할인(7~8월 한도 월 최대 2만 원 확대)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유연하게 전력사용을 조절하는 문화를 확산해 전력소비 효율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야간노동자 건강 빨간불... 정부지원 착수

고용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야간 특검 128만명 중 23% 이상소견
30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집중 지원

야간직업자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 4명 중 1명으로 심혈관계나 신경계 등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가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가 많이 발생하는 300인 미만 중소·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를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야간직업 노동자의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야간직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야간직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128만명 중 무려 23%에서 심혈관계, 신경계 등 주요 장기에 이상 소견이 확인돼, 야간직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야간 노동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 야



오후 9시 이후 심야 택배 배송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간 특검 유소견자 발생 비율이 높은 300인 미만의 제조업, 부동산업(아파트·건물경비), 운수창고업(택시·버스운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요양병원), 택배업 등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공단은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교대·야간근무 형태, 연속 야간일수, 휴게 및 사이잡 운영 여부, 대체인력 및 관리감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조도와 온도, 수면실·휴게시설 등 작업환경 전반을 살펴보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현장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근로자 개인을 위한 사후관리도 촘촘해진다. 공단은 지역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야간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에게 1대1 맞춤형 건강상담, 수면장애 및 피로도 평가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증상이 심각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전문가 진료를 연계해 전문적인 관리를 받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노동자의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면장애와 만성피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에는 '교로사예방센터(가칭)'를 신설해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책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야간직업 노동자는 교대제와 장시간 근로, 수면 부족 등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중소사업장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건강이상자 조기발견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건강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소음성 난청 산재처리 1년 대기 줄인다

근로복지공단, 내달 특진의료기관 운영
전국 83개 병·의원서 정밀검사 가능

산업현장의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실되는 '소음성 난청'의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사기관 부족으로 산재 신청 후 장애급여를 받기까지 평균 1년 이상 기다려야 했던 재해 노동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처리 기간을 대폭 단

축한다고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특히 퇴직 후 뒤늦게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특성상 고령 노동자의 신청이 몰리며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023년 1만 7182건 ▲2024년 2만 1247건 ▲2025년 2만 8652건으로 매년 20~30% 이상 급증했다.

반면, 법령에 따른 정밀 청력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극히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재해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는 데만 평균

234일이 소요됐으며, 최종 장애급여 결정까지 걸리는 전체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374일에 달했다. 일반 병·의원에서 간이검사를 받고 산재를 신청해도, 공단병원이나 일부 상급종합병원 등 지정된 곳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해 극심한 대기 정체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능사, 정밀 청력검사 시설과 장비 등을 고루 갖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전국 83개소를 특진의료기관으로 새로 인증했다. 앞으로 이들 전문 의료기관에서 법령 기준에 맞춰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신뢰도에 대한 의학자문만 거치면 장애급여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KIAT, 대경권서 5극3특 포럼 마무리

대구 엑스코서 대경권 전략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대구·경북(대경권) 지역을 마지막으로 전국 권역별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소통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IAT는 지난 26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대경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중부권·대경권·동남권·서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합쳐 이르는 말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다극체제 개념이다.

이번 대경권 포럼은 대구·경북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첨단산업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다양한 산업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구·경북에 대한 민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산업지도의 다

극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권을 제외한 4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릴레이 현장 간담회다. KIAT는 앞서 서남권(10일)을 시작으로 제주(19일), 강원(23일), 동남권(23일), 중부권(25일), 전북(25일)을 거쳐 이번 대경권 포럼을 끝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완수했다.

전용중 KIAT 원장은 "이번 첨단산업과 제조기술의 기반을 동시에 보유한 대경권을 끝으로 릴레이 포럼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그간 권역별로 성장엔진 발굴과 육성에 다양한 의견을 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5극3특 지원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가중요시설 지킬 대드론 표준 첫 마련

국표원, 29일 대드론 KS 제정 고시
레이더·RF스캐너 등 시험방법 규정

최근 글로벌 전쟁과 테러 등에서 드론을 활용한 위협이 급격히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내 발전소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대)드론 체계'의 성능평가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그간 성능평가 검증이 어려워 장비 도입에 난항을 겪던 보안 시설의 안보 공백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미확인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방어하는 대드론 체계의 성능평가 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6월 29일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KS W 8100(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 - 레이더, RF스캐너, EO/IR카메라, 제

터)'으로, 대드론 체계 구성장비들이 드론에 대한 탐지 능력과 범위, 식별 정확도 및 무력화 기능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 등을 통해 드론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으나, 국내 국가중요시설들은 대드론 체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표준이 없어 장비 도입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는 이번 KS 표준을 토대로 대드론 체계 인증제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대드론 표준과 인증제도는 '국가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의 안보 공백 해소는 물론, 초기 단계인 국내 대드론 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100+

인공지능 (AI) 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2026년 7월 9일(목) 오후2시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주제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 일시 2026년 7월 9일(목)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의 2026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선착순 100명, 택1)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송홍선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AI와 자본시장, 기회와 위험
강연	14:50~15:20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15:20~15:50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 본부장
	15:50~16:20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
	16:2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 2차 도시철도망 확정... 부산항선 등 145.6km 연장

10개 노선 선정·4개 노선 후보 북항 재개발 등 도심 변화 대응 기존 부산 1·2호선 급행화 추진

부산시는 향후 10년간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과 고시를 마쳤다.

이번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전문가 공청회, 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위원회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국가교통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계획에는 제1차 구축계획 이후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북항재개발, 에코델타시티 및 센텀2지구 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과 부산교통권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 도시공간 구조에 대응하는 철도망을 제시했다.

경제성(B/C) 0.7 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 이상 기준을 충족한 대상 노선은 모두 10개다. 총연장은 145.66km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 노선(단위 :km, 억원)>

노선명	기종점	연장	사업비
부산형 급행철도	가덕도신공항~명지~하단~부산역(북항)~부전~센텀~오시리아	54.04	47,692
부산항선	태종대~중앙역(1호선)~북항~범일역(1호선)~문현역(2호선)~우암~감만~경성대~부경대역(2호선)	24.21	7,240
정관선	기장군 월평리~정관신도시~좌천삼거리~좌천역(동해선)	12.8	4,330
송도선	자갈치역(1호선)~송도해수욕장~고신대~감천사거리~장림역(1호선)	7.05	4,024
강서선	명지오션시티~에코델타시티~대저역(3호선)	21.1	7,252
기장선	안평역(4호선)~기장초~기장중~기장역(동해선)~일광신도시	7.1	4,697
연산 제2센텀선	연산역(1,3호선)~토곡사거리~부산원동역(동해선)~센텀2지구 산업단지~석대역(4호선)	8.03	7,148
오시리아선	장산역(2호선)~송정역~동부산관광단지(오시리아)	4.13	4,825
부산 2호선 급행화	양산역~서면역~장산역 (급행역 11개역, 부분선 설치 7개소)	2.9	4,991
부산 1호선 급행화	노포역~서면역~대대포해수욕장역 (급행역 9개역, 부분선 설치 8개소)	4.3	6,659

다.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향후 도시개발과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 필요성이 있는 4개 노선 33.82km는 후보 노선으로 포함했다.

대상 노선에는 가덕도신공항과 명지·부산역·센텀·오시리아를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비롯해 부산항선과 정관선, 송도선, 강서선, 기장선, 연산제2센텀선, 오시리아선이 담겼다. 기존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산2호선 급행화와 부산1호선 급행화도 함께 반영

됐다. 후보 노선은 오륙도선과 주례~부산역 연결지선, 동부산선, 덕천~초읍~서면선 등 4개다.

부산시는 구축계획 승인에 맞춰 노선별 경제성과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항선은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항선을 중심으로 문현~시민공원과 대연~오륙도를 연결하는 지선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원도심과 해안권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철도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여군 내달 3일 '서동연꽃축제' 개최

부여군 대표 여름 축제인 제24회 부여서동연꽃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서동공원(공남지) 일원서 펼쳐진다.

'사랑의 시작, 연꽃향기에 물들다'를 주제로, 공남지의 아름다운 연꽃과 서동·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참여형 프로그램을 집중 선보인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남지의 여름밤을 배경으로 천년 전 서동과 선화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와 리듬으로 재해석한 이머시브 주제공연인 '2026 공남지 판타지'를 선보인다. 축제의 주제인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야기와 음악, 현장 분위기에 함께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여(충남)=양대승 기자 zzica@

화순군 '직장인 마음충전소' 사업장 모집

화순군은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강영)에서 직장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직장인 마음충전소'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총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모집은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차 모집은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 찾아가는 마음카페(음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화순(호남)=양수영 기자 ysn6313@

광양시, 내달 '걷기 챌린지' 운영

광양시는 내달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월(7)전달기 더위도 걷는다! 7월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1일 최대 8천 걸음까지 인정되며, 기간 중 누적 20만 보를 달성한 참여자는 광양사랑상품권 5000원권 지급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시는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70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한 뒤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 탭에서 해당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광양(호남)=양수영 기자

창녕군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하세요'

경남 창녕군은 군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온라인(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미래 산림자원 확보 팔 걷어

산불피해 '자연복원·인공조림' 대응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 다질 것'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도가 피해 산림의 대부분을 자연복원 방식으로 회복시키되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계획적인 조림을 병행하는 복원 전략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현장조사와 입지 분석을 토대로 피해지별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 회복과 주민 안전, 미래 산림자원 확보를 함께 고려한 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의 민유림 면적은 8만9804ha다. 이 가운데 7만5117ha인 83.7%는 자연복원 방식으로 관리한다. 조림복원 대상은 1만4488ha로 전체의 16.1%를 차지하며 생태복원은 199ha 규모로 추진한다.

자연복원 대상지라도 복원 여건에 따라 인공조림을 함께 실시한다. 종자 공급원이 부족하거나 토양 유실이 심한 지



안동산불 피해지 복구 현장

역과 산사태 위험이 큰 급경사지, 생활권 인접 산림 등은 기능별 맞춤형 복원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자연복원만을 고집하면 재해 취약 상태가 장기화되고 산림의 전반적인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와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제적·계획적으로 조림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목재 생산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거창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해드려요"

내달 16일까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남 거창군은 올해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

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년~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자격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군은 올해 총 3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12개월간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된다.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경남도, 농어업인 경영안정 200억 투입

하반기 융자 지원 신청 접수

경남도는 경영비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200억 원이다. 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 1%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며, 특히 청년농업인에게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0.8% 금리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융자 신청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했다. 상반기

에는 약 500명에게 1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융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 희망자는 7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시군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경남도가 8월 초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유기농산업 지원단지 조성 속도

울진·의성, 친환경 시설 구축 순항

경북도가 울진군과 의성군에 추진하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체험·소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울진에는 지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180억원(국비 90억원 포함)을 들여 근남면 수산리 왕피천 공원 일원에 5만 8918㎡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유기농 복합문화센터, 청년 유기농 사관학교, 소규모 감치공장, 유기농 실외체험장, 미래농업 체험장 등이 들어선다.

지금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원가심사와 일감

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8월에 울진군이 경북도에 사업시행 승인을 요청하면 10월 공사입찰을 거쳐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의성에서는 신공항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난 2023년 경북도와 의성군이 사업을 시작했다.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일원 부지 7만 5629㎡에 건축면적 3199.7㎡ 규모로 사업비 163억원(도비 70억, 군비 93억원)을 들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곳에는 친환경 유기농 통합유통물류기공센터, 친환경 유기농장이 들어선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이곳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출하처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안동소주에서 와인·사케의 향을”... ‘K-소주’ 세계로 도약

Q 르포

나라셀라 ‘소주스토리’

경북 안동시 풍산증류소 준공식 소주 한병 기준 약 160만병 생산 저온발효로 아로마·감칠맛 고집 생산 일부, 오크통 넣어 장기 숙성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소주스토리 풍산증류소.



나라셀라 소주스토리 풍산증류소 내부 발효조. /안상미 기자

경상북도청에서 6km 가량 떨어진 경북 바이오 2차산업단지에 들어선 나라소주 양조장. 내부에는 일본에서 들여온 대형 제국기부터 상압·감안 겸용인 증류기, 발효조, 여과기, 저장조 등과 함께 병입과 추가 오크 숙성까지 가능한 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증류식 소주 생산설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모든 공정이 연속으로 이뤄질 수 있는 현대적 최신 설비다.

지난 25일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서 소주스토리 풍산증류소의 준공식이 열렸다. 우리쌀을 사용해 현대적인 양조기술로 한국을 대표할 ‘K-소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소주스토리에는 와인 수입·유통사인 나라셀라가 지분 88.89%를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이다.

풍산증류소는 제1공장 기준으로 부지면적 1000평, 건축면적 800평 규모로 조성

됐다. 연간 생산능력은 60만리터다. 보통 소주 한 병인 375ml 기준으로 약 160만병 규모다. 설비 안정화와 생산 준비를 거쳐 오는 11월 초계 25도와 43도 제품을 시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기동에 들어가지만 숙성에 3개월 이상 시간이 더 걸리면서다.

소주스토리 대표이사인 마승철 나라셀라 회장은 “풍산증류소 준공으로 나라소주 프로젝트가 시제품과 시장성 검증 단계를 넘어 본생산 준비 단계로 진입했다”며 “안동의 지역 원료와 한국적 향미, 일본의 증류 노하우, 와인 사업에서 축적한 향미 해석 역량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프리미엄 증류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라소주 프로젝트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셀라가 기존 와인에 이어 일본 사케와 소주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안젠가는 한국의 전통 가치를 담은 주류를 만들어보겠다는 비전을 갖게 됐다. 나라셀라 입장에서는 수입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조 기반이 필요했던 차에 2023년 경북도가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선언하면서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았다.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안동에 부지확보, 일본 니시주조와의 기술 협력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마 회장은 “스코틀랜드와 보르도, 토스카나, 가오시마 등은 술과 함께 문화의 도시로 전 세계에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이제는 안동소주가 국

경을 넘어 뉴욕과 런던 동경 등 세계 주요 도시로 뻗어나가 깊은 발자국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라소주는 안동쌀로 만든다. ‘영호진미’와 ‘백진주’는 묵직한 바디감에 깨끗하고 풍부한 풍미가 있다. 여기에 자가 배양 누룩과 효모, 안동 지하 암반수가 핵심 원재료다.

프리미엄 증류주를 만들기 위한 양조 키워드는 저온 발효와 숙성이다.

보통 증류주가 빠른 발효를 위해 상온(약 20~22도)에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나라소주는 2~3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온 발효(약 10~15도)를 고집한다. 와인을 만들 때 저온으로 발효하면 깔끔하고 순수한 아로마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주는 다

양한 아로마와 감칠맛이 생긴다.

시범생산된 나라소주 25도를 시음해보니 향으로 먼저 다가왔다. 좋은 사케에서 맡아봤을 법한 바나나와 파인애플 향이 은은하게 코를 사로잡고, 입 안에서는 목 넘김이 부드럽다.

소지섭 소주스토리 생산팀장은 “사케처럼 쌀을 깎아내지 않아도 좋은 쌀을 사용해 저온으로 발효하면 향미 성분을 끌어낼 수 있다”며 “일본에서 시범 생산할 당시 니시주조 관계자도 감탄했던 품질”이라고 전했다. 소 팀장은 나라소주 디스틸러(증류주 생산자)로 와인으로 치면 와인 메이커다.

나라소주 일부는 생산 직후 오크통에 넣어 3년 이상 장기 숙성할 계획이다.

마태호 나라셀라 이사는 “오크통을 활용해 증류주의 깨끗한 질감과 숙성에서 오는 깊이감을 구현할 예정”이라며 “현재 미국 프리미엄 쉐드 와인과 프랑스 부르그뉴 화이트 와인 등 주요 와인 산지의 고급 와인 숙성에 사용된 오크통을 들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시장 공략은 기존 와인 수입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으로 수출하는 방안과 해외 진출 K-레스토랑 등과 손을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G마켓, 라자다 연동상품 3000만개로 확대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셀러 1만7000여곳 참여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판매

G마켓이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플랫폼 라자다와의 상품 연동을 확대하며 해외 역직구 사업을 강화한다. 상품 등록 기준을 완화해 국내 판매자의 해외 판매 기회를 넓히고,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G마켓은 라자다와 연동하는 판매 상품 수를 기존 700만개에서 3000만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양사가 역직구 사업 협력을 시작한 이후 글로벌 판매 시스템을 개선한 데 따른 조치다.

G마켓 글로벌 판매 프로그램에는 국내

셀러 1만70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라자다를 통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5개국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상품 등록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무료배송 상품만 해외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료배송과 조건부 무료배송 상품도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판매자는 해외 주문이 발생하면 상품을 인천의 G마켓 물류센터로 보내면 되며, 이후 국제배송과 통관 등 해외 물류는 G마켓과 라자다가 맡는다.

실적도 증가세를 보였다. G마켓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1일) 라자다

를 통한 거래액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02% 증가했다. 최근 한 달(5월 22일~6월 21일) 거래액도 직전 한 달보다 232% 늘었다.

라자다의 할인 행사인 ‘더블데이(6월 6일)’에서는 한국 브랜드 상품 거래액이 전월 대비 246% 증가했으며, 양사가 매일 진행하는 ‘Gmarket Day’ 6월 행사 거래액도 평소보다 128% 늘었다.

G마켓은 연내 알리바바그룹의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과 남미, 서남아시아 등으로 역직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소비자와 국내 판매자를 연결하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체류형 공간 강화

의왕점, 인기 외식 브랜드 선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이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한 식음(F&B) 콘텐츠를 확대하며 체류형 쇼핑 공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의왕점은 2021년 개점 이후 우리 온실 형태의 ‘글라스빌’과 넓은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쇼핑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왔다. 약 6600㎡ 규모의 중앙광장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바다분수 등을 갖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

의왕점은 인기 외식 브랜드를 잇달아 선보인다.

지난 19일 글라스빌 1층 테이스티그라운드에는 햄버거 브랜드 ‘웨이크쉐어’이 문을 열었다. 약 70평 규모의 매장에는 4인석 중심으로 90석 이상의 좌석을 마련했다.

오는 7월 9일에는 2층에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3층에 카페

‘정지영커피로스터즈’를 신규 오픈해 식사와 디저트를 아우르는 F&B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의왕점은 오픈 기념으로 7월 한 달간 모든 주문 고객에게 ‘오리지널후라이즈’ 또는 공통 모양 크레용을 증정한다. 정지영커피로스터즈는 오픈 첫 주말인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일부 음료의 테이크아웃 주문에 대해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의왕점은 지난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점포 가운데 F&B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회사는 신규 외식 브랜드 도입을 통해 체류형 아울렛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은 의왕점 외에도 F&B 콘텐츠 확대를 이어간다. 오는 7월 1일 파주점에는 제주 수제만두 전문점 ‘장인의집’을, 김해점에는 ‘제주삼대국수’를, 기흥점에는 ‘소이연남’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CFS, 전국 물류센터 온열질환 예방활동

현장 근무자에 흡서기 키트 등 전달
물류센터 냉방환경 개선 투자도

쿠광폴필먼트서비스(CFS)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전국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냉방 인프라 확대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진이 주요 센터를 직접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쿠광은 정종철 CFS 대표가 지난 25일 이천2센터에 이어 26일 인천4센터를 방문해 흡서기 대응 상황과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장 근무자들에게 얼음음료와 선물을 전달하고, 폭염 대응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했다.

CFS는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입해 물류

센터 냉방 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집중 근무구역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HVAC(냉난방·환기·공조)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냉기 밀폐형 도어를 설치하고 실링팬, 서큘레이터, 대형 선풍기 등 환기 시설도 확충했다.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흡서기 키트를 비롯해 냉매조끼, 쿨토시, 냉패치, 넥쿨러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CFS는 전국 폴필먼트센터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는 모두 간호사 면허와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온열질환과 심혈관·근골격계 질환 예방 상



쿠광폴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가 지난 25일 이천2센터에서 직원들에게 얼음 음료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쿠광

담,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작업환경 개선 자문 등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정종철 CFS 대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쿠광의 최우선 가치”라며 “현장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냉방 인프라 투자와 전문적인 예방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U, 여름 와인 ‘배비치 소비농블랑’ 선보

뉴질랜드 와이너리 ‘배비치’ 협업

CU가 뉴질랜드 와이너리 배비치와 협업한 화이트 와인을 출시하며 여름철 와인 수요 공략에 나선다.

CU는 다음 달 1일 차별화 와인 브랜드 ‘음(mmm!)’의 신제품인 ‘음(mmm!) 배비치 소비농블랑’(알코올 도수 12.5%)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CU는 2021년 업계 최초로 가성비 콘셉트의 차별화 와인 브랜드 ‘음(mmm!)’을 출시했다. 미국, 이탈리아 등 주요 산지의

와인을 1만원 안팎의 가격대로 선보이며 현재 누적 판매량 500만 병을 돌파했다.

이번 신제품은 ‘음(mmm!) 시리즈’의 18번째 상품으로, 뉴질랜드 와이너리 배비치와 협업해 기획한 소비농블랑 품종의 화이트 와인이다.

CU는 배비치의 대표 와인을 차별화 상품으로 운영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한 달간 3000원 할인 판매하며,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결제하면 2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에이피알, 美 매출 250% 성장 앞세워 K-뷰티테크 확장

김병훈 대표, BoF 포럼 첫 연사
1분기 해외매출 5281억원 기록
해외 비중 89%로 글로벌 확대

美 타겟 입점으로 현지 공략 강화
부스터 프로 X2로 홈뷰티 고도화
미용의료기기까지 사업영역 확장



지난 24~26일(현지 시간) 열린 '더 비즈니스 오브 뷰티 글로벌 포럼 2026'의 한 세션에서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가 'K뷰티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피알

에이피알이 기술과 데이터를 갖춘 'K뷰티테크'의 해외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뷰티 표준화에 나선다. 2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2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나 파 벨리의 스탠리 랜치에서 개최된 '더 비즈니스 오브 뷰티 글로벌 포럼 2026'에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가 참가했다. 김 대표는 한국 뷰티 기업 대표가 연사로 초청된 첫 사례다.

이 포럼은 매년 글로벌 패션·뷰티 전문 미디어 '비즈니스 오브 패션(BoF)'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전 세계 유력 뷰티 기업

경영진, 투자자 등 150여 명의 핵심 리더들이 모인다.

이번 행사 첫날 오후에 열린 피아이어사이드 첫 세션에서 김 대표는 'K-뷰티 재도약의 비결'을 주제로 한 대담을 가졌다. 김 대표는 에이피알 창업부터 K뷰티로 이뤄낸 혁신 과정을 공유했다.

김 대표는 "K뷰티가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안착했다"고 강조하며 "과거 독특

한 제형, 성분 등 '신선함'에 기인했다면 현재는 과학과 기술을 결합한 영역에서 K뷰티가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압도적인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며 세계적 무대에서 K뷰티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올해 1분기만 살펴봐도, 에이피알은 글로벌 전역에서 폭발적인 매출을 올렸다. 해당 매출은 59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커져 분기 최

대 매출이다. 이중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5281억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서 89%로 확대됐다.

지역별 매출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가 나타난 곳은 단연 '미국'이다. 올해 1분기 미국에서 거둔 매출은 전년 동기 708억원에서 250.8% 증가해 2485억원이다. 미국 내 온라인 채널에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지 대형 오프라인 매장 '타겟' 등에 입점한 성과다.

에이피알은 이처럼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 등을 선보인다. 올해부터는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 X2' 등을 출시하며 홈뷰티 시장에서 제품 고도화 전략을 펼친다.

부스터 프로 X2의 경우 에너지 전달력과 화장품 유효 성분 흡수율을 개선한 차세대 제품이다. 기존 메디큐브 제품과 병행 사용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향후 미래 키워드로 '통제비티의 대중화'를 선언했다.

최상의 피부 상태를 구현하는 동시에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피부 자신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과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용의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 오는 하반기 국내에서 미용 의료기기 신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며 중장기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기반 디바이스(EBD) 의료기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해 현재 관련 전임상, 임상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에이피알의 글로벌 성장은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니라 뷰티테크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뷰티테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뷰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AI 신약개발로 성장동력 강화

바이오USA서 180건 이상 미팅
ADC·다중항체 협력 기회 모색
AI 기반 타겟 발굴 역량 소개



셀트리온 바이오USA 부스 모습.

셀트리온이 지난 22~25일(현지 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전시 행사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 참가해 AI 기반 신약 개발 역량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적극 확대하며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17년 연속 바이오USA에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 경쟁력, 사업 비전을 알리는 역할에 주력해 왔다.

총 니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테크와 180건이 넘는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며 사업 분야 전반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참가해 온 바이오USA 행사 중 가장 많은 미팅 숫자다. 특히 핵심 미래 동력인 항체약물결합체(ADC) 및 다중항체(MsAb) 신약 분야

실무자들이 직접 행사에 참가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셀트리온의 신약 기술력과 경쟁력을 피력하고, 폭넓은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올해 '바이오USA'에서는 셀트리온의 AI 기술 활용 성과와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도 집중했다. 특히, 셀트리온에서 주력하고 있는 ▲AI 기반 신규 타겟 발굴 및 포트폴리오 확장 ▲차세대 다중항체 설계 기술 ▲개발 가능성 평가 기술 ▲

데이터 기반 연구 플랫폼 등에 큰 관심이 모아져 해당 영역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부장 분야에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품 생산 효율화와 기술력 강화를 이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행사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과의 협의를 지속해 상호 협력 방안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해 바이오USA에서는 2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부스를 방문해 셀트리온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위상을 실감케 했다"며 "특히, 기존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넘어 ADC·다중항체 등 신약 개발 분야 및 AI 기반 기술력 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행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발굴해 낸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며,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 그룹 등에서 큰 관심을 나타낸 차세대 성장 동력 역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운동한 회장 "이순신 경영, 기업이 필수 덕목"

(콜마그룹)

네 번째 역사 경영 에세이 출간
콜마 성장 이끈 경영철학 집대성
유비무환·경청 리더십 가치 조명



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건강 기능식품, 신약을 내놓기까지 콜마그룹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이순신 정신이 뒷받침됐다.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사진)이 창업 36년 만에 한국콜마를 대기업집단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이순신 경영법'을 제시하며 이를 학술적으로 집대성했다. 운동한 회장은 실제 경영 현장에서 체득하고 적용해 온 총무공의 리더십을 정리한 네 번째 역사 경영 에세이 '이순신의 위대한 경영'을 출간했다.

콜마그룹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윤 회장과 그룹이 본받아 온 총무공 철학을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회장은 이순신 장군을 탁월한 전술·전략가이자 자급자족을 이뤄낸 최고 경영자로 분석한다. 임금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전함을 건조하고 군량미와 대포, 화약까지 직접 조달한 점을 집중 조명해 왔다.

특히 윤 회장은 판옥선을 개조해 거북선을 창제한 이순신 장군의 혁신을 한국 콜마의 연구개발(R&D) 중심 성장에 접목했다. 윤 회장은 1990년 국내 최초로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체계를 도입

또 윤 회장은 이순신의 '유비무환 정신'과 장졸부터 어부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경청의 리더십'은 오늘날 기업가들이 이어가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윤 회장은 이순신 정신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7년 비영리법인 서울여해재단을 설립했다. 중소·중견 기업 임직원을 위한 이순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간 1000명이 넘는 전문 경영 인력을 양성했다.

윤 회장은 학술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19년 '80세 현역 정경 장관', 2022년 '조선의 지켜낸 어머니' 등을 집필했고 2023년 '이총무공전서' 현대어 번역 및 출간을 지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이순신학 1호 박사'이기도 하다. 2024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순신학과에서 '고하도·고금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이순신의 승리 전략 연구' 박사 논문을 냈다.

/이청하 기자

제약바이오협회, AI 실무교육 확대

8월 25~26일 협회서 실습과정 개최
30명 소수정예 팀 프로젝트로 진행

템 기획부터 가동, CSV 문서화와 검증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수강대상은 QA, CSV/DI, QC, 생산, 공무, IT, 연구소 등 제약바이오 분야 실무자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자에게 적합하다. 코딩 경험은 필요하지 않으며 GMP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8월 12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강의와 실습은 DI 및 CSV 전문기업인 아이엔씨피의 김정민 대표와 캡코연구소의 이태원 대표가 맡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AI 기반 시스템 구축부터 CSV 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화·검증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제약 업계에 요구되는 데이터 완전성과 전산 관리 역량을 효과적으로 다져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전환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실무형 교육을 강화한다.

협회는 오는 8월 25~26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인공지능 바이오코딩 기반 DI 솔루션 구축 및 CSV 실습과정'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현장에 데이터 완전성(DI)과 전산화 시스템 검증(CSV) 역량을 더하는 데 중점을 둔다.

30명 규모의 소수정예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교육생들은 조별로 시스

CJ바이오사이언스, 정밀영양 플랫폼 공개

KMB 학술대회서 통합 플랫폼 기술 발표

준으로 모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주기 통합 플랫폼'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4~26일 열린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KMB) 학술대회에서 장내 미생물 기반 정밀 영양(Precision Nutrition) 분야의 혁신적인 통합 플랫폼 기술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히 장내 미생물 구성을 읽고 분석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개인의 장내 생태계를 정밀하게 이해하고 특정 물질이 실제 장내에서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지 연구실 내에서 높은 수

이를 위해 CJ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정밀 분석 플랫폼인 'Ez-Mx(이지엠)'을 활용해 한국인 정상인의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고해상도로 분석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대비 약 3배 많은 종(Species) 수준의 미생물 동정이 가능한 이 기술을 통해, 연구진은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유형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세분화하고 개인별 장내 환경의 차이를 정밀하게 해석해냈다.

/이세경 기자

LOTTERIA™

basil

mozzarella

tomato

pineapple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나폴리 맛피아 VS 삐딱한 천재





풀무원푸드머스, 포항 영유아 식생활 지원 협약

풀무원푸드머스가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포항지역 영유아의 식생활 교육과 지역 농식품 사용 확대를 위한 3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풀무원푸드머스 최민준 지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박정태 센터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 박춘배 센터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협약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



“사랑의 마음으로”... 애경산업, 헌혈 캠페인 진행

애경산업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및 충남혈액원과 함께 생명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사랑과 존경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사랑과 존경의 헌혈 캠페인’을 기념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산업



세븐일레븐, 가맹점과 상생·화합 위한 ‘매치데이’

세븐일레븐이 지난 27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이언츠와 LG트윈스 경기에서 ‘2026 세븐일레븐 매치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7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자이언츠와 트윈스 경기에 맞춰 ‘세븐일레븐 매치데이’를 개최했다. /코리아세븐



락앤락, 친환경 경영 ‘서울시 환경상’ 우수상 수상

락앤락이 2026 서울특별시 환경상에서 기후행동·교육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8일 락앤락에 따르면 회사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후행동 활동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일반 시민부터 미래세대까지 함께 하는 자원순환 및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후행동의 가치를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락앤락

KT&G 신진 디자이너 육성 공모전 개최

KT&G가 신진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2026 디자인 챌린지’ 공모전을 열고 다음 달 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디자이너에게는 상급과 브랜드 협업, 굿즈 제작, 팝업스토어 운영 등 브랜드 론칭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KT&G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론칭 지원 프로그램인 ‘2026 디자인 챌린지’ 참가자를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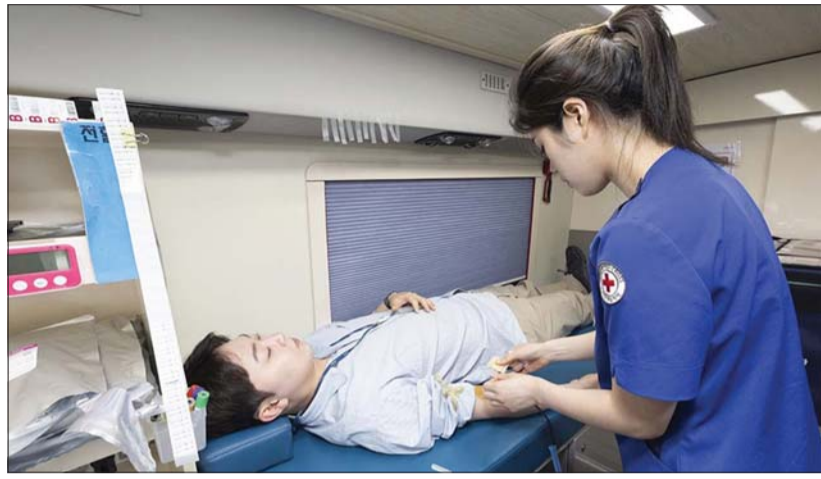
28년 이어온 헌혈 나눔... 포스코, 환자 20만명 도왔다

누적 참여자 6만5000명 돌파 백혈병소아암협 등에 헌혈증 전달

포스코의 장기 헌혈 캠페인이 임직원과 협력사 참여 속에 대표적인 생명 나눔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는 1998년부터 포항·광양·서울 지역에서 운영해 온 ‘사랑의 헌혈’ 캠페인의 누적 참여자가 6만5000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28년간 누적 헌혈량은 전혈 기준 약 2600만ml에 달한다. 이는 1.5l 페트병 약 1만73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 약 20만명에게 도움이 가능한 규모다. 헌혈증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지난 17일 포항에서 열린 사랑의 헌혈 행사에서 포스코 직원이 생명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포스코

해까지 포스코가 모은 누적 헌혈증은 1만3500장으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에 전달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 지원에 활용됐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와 입주사 임직원까지 참여하며 지역사회 헌혈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내에서는 누적 200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누적 헌혈 250회를 기록한 전경식 광양 도금부 4도금공장 과장은 “회사에서 주최한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하며 첫발을 내디뎠고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며 “헌혈은 이웃에게 따뜻한 생명을 나누는 동시에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쁨”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 칸 라이언즈 그랑프리 수상

독창적 브랜드 캠페인 역량 입증

현대차·기아가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수상 실적을 쌓으며 독창적인 브랜드 캠페인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현대차는 칸 라이언즈 2026에서 소음을 문화로 재해석한 ‘코기 알람’ 캠페인이 오디오·라디오 부문 그랑프리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또 전 세계 바다 숲 보전 사회 공헌 캠페인 ‘이름 없는 숲’은 크리에이티브 데이터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코기 알람은 현대차 푸에르토리코에서 실시한 현지 밀착형 브랜드 캠페인이다.

지역의 상징적 존재인 코기 개구리 울음소리에 불편함을 느낀 관광객 반응과 이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발 등 사회적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국가의 정체성과 매력을 재해석했다.

현지에서 운영하는 현대차 렌터카 문 잠금 알람음에 코기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적용해 푸에르토리코의 문화적 자긍심을 강화한 것이다.

이름 없는 숲은 육지 숲과 비교해 주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캠페인 이미지.

목받지 못했던 바다 숲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지도 서비스에 반영하는 사회 공헌 캠페인이다.

지원원 현대차 브랜드 마케팅 본부장(부사장)은 “2년 연속 그랑프리를 포함한 칸 라이언즈 수상은 현대차가 꾸준히 이어온 창의적 시도와 혁신적 브랜드 마케팅이 글로벌 무대에서 의미 있는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또한 칸 라이언즈 2026에서 비전 펄스 캠페인으로 기술 디자인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비전 펄스 캠페인은 유치원 통학 버스에 비전 펄스 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지킨 현대차·기아의 활동과 그 과정을 담은 영상 콘텐츠다.

하나금융, 스마트물류단지 금융 지원

서부티엔디와 협약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서부티엔디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부티엔디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최첨단 스마트물류시설과 상업·지원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자금조달, 기업금융, 공동투자 등 금융업무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의 기업금융 역량과 하나증권의 투자금융(IB) 역량을 결합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우선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구조분석 및 금융설계 ▲양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합 금융솔루션 제공 등 사업의 전(全) 단계



협약식에 참석한 합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승만호 서부티엔디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별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합영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과 개발사업의 경계를 허물고, 두 분야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물류·금융·의료·문화시설 등 다양한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인 선정

한울생약, 美 등 800억 이상 수출 총무타올, 친환경 염색공법 적용

한영돈 한울생약 대표와 김상범(유)총무타올 대표가 2026년 2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됐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울생약은 물티슈 전문 제조업체로 끊임없는 제품개발을 통해 ‘플라스틱 덩어리’라는 부정적인 식에서 벗어난 친환경·고품질의 물티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오존살균기술’, ‘아로마테라피 기능’ 등 20건 이상의 보유 특허기술을 활용해 무화학제품, 100% 재활용 소재 제품을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미국, 유럽 등 해외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작년에는 800억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한영돈 한울생약 대표 김상범 총무타올 대표

2023년에는 아기물티슈 부문 수출 1위로 산업통상부의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제품 품질성을 인정받았다.

유한회사 총무타올은 디젤 제조 전문 기업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과 제조 공정 내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국내 최초 EFD(친환경 염색공법)를 생산 공정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공정 시간을 40% 이상 단축하고 정수제·정전제 등 일부 공정 약품 사용을 저감해 친환경 제조 기반 구축과 생산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GS리테일, 5회 연속 ESG ‘AA등급’

ESG 우수기업 입지 강화

GS리테일이 국내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2026년 상반기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 23일 발표된 평가 결과에서 AA등급을 받아 2024년 이후 5회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했다. 올해 평가 대상 1305개 기업 가운데 AA등급을 받은 기업은 11.7%였다.

회사는 서스틴베스트가 선정한

‘2026년 상반기 ESG Best Companies 100’에도 5회 연속 이름을 올렸으며, 필수소비재 유통·소매 업종의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 가운데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상장·비상장 기업 약 1300곳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김서현 기자 seoh@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초경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임용 △수치예보센터장 하종철

부음 ▲박영순씨 별세, 장석범 문화일보 사회부 부장·지수·란숙씨 모친상 = 28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0일 7시45분 1522-7000

▲조우성씨 본인상, 이희원씨 남편상, 조선영(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신광(광운대 교수)·성우(광운대 참빛인재대학 교학팀장)씨 부친상, 신상화·유준호씨 장인상, 이형민씨 시부상 =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일 오전 8시30분, 장지 1차 서울시립승화원, 2차 포천 다보정사. 02-2072-2020

▲배정순씨 별세, 허영길(LS그룹 홍보담당 상무)씨 장모상, 강동원(기아)씨 토랜드 광명공장장 전무·강성욱·강성희씨 모친상 = 28일, 경기 광명 중앙대 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30일 오전 5시, 장지 경북 상주시 공성면 선영. 02-2610-9472

▲김형자씨 별세, 최일(OBS경인TV 보도국 부장)씨 모친상 = 28일, 용인 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9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031-678-7600

법인 구조조정의 새 선택지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단은 크게 법적 절차(회생)와 사적 절차(워크아웃·자율협약)로 나뉜다. 법적 절차는 강제력이 강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사적 절차는 유연하지만 전체 채권자를 구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제도들을 잇달아 도입하며 구조조정 실무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Pre-ARS(예방적 구조조정)는 회생신청 자체를 하기 전 단계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제도다. 법원의 민사 조정절차를 활용해 주요 채권자와 비공개로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의 구조조정지원약정(RSA)과 일본의 채무변제협정조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회생신청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거래처 이탈 등 이른바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다만 회생신청 전 단계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받을 수 없어, 일부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가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에 나서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단이 없다

는 한계가 있다. 합의에 이르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하며, 합의가 결렬되면 회생절차·워크아웃·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자율구조조정지원(ARS)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유보한 채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 간의 자율적 협상을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의 보호막 아래 협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적 절차보다 실효성이 높다. 협상이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결렬되면 곧바로 회생절차로 전환된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ARS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차단하는 보호막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채무조정 협상은 주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투트랙 전략이다. 2025년 5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 3개월간 워크아웃 협상에 집중할 수 있다. 협상이 성공하면 회생신청은 취하되고, 워크아웃이 실패하더라도 이미 회생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계획안(P플랜)을 제출함으로써 신속하게

인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P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까지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확보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1항). 여기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는 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한 요건이며, 최종 인가를 받으려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신청 전 주요 채권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인가에 필요한 동의까지 미리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미국 연방파산법 Chapter 11의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과 유사한 구조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회생절차의 성격은 갖는다.

이처럼 ARS → 하이브리드 → P플랜으로 이어지는 스펙트럼은 기업의 재무 상황, 채권자 구성, 협상 가능성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조조정 실무에서는 이 제도들을 단계적·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바른법무법인

‘참교육’이 통쾌한 이유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악성 민원으로 무너진 학교에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투입돼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다.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비슷하다. "속이 시원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실이 아닌 드라마에서 해답을 찾는다. 절차를 건너뛰고, 가해자를 단번에 응징하고, 피해자를 즉시 구해내는 장면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법과 제도보다 한 사람의 강한 권한이 더 빠르고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현실에서는 위협하지만, 현실이 답답할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물론 현실의 학교는 드라마처럼 움직일 수

없다. 누군가의 사적 응징으로 정의를 세울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학교가 갈등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과 소송을 우려해 한발 물러서는 현실도 정상적인 교육 현장의 모습은 아니다. 학교는 질서를 세워야 하는 공간인데, 정작 질서를 세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요즘 학교 관련 뉴스는 대개 한 지점으로 모인다. 학교가 제때 막지 못하고, 피해자는 늦게 보호받았으며, 교사는 혼자 남았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생활지도 갈등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남긴다. 학교는 지금 학생을 어디까지,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가.

교총 등 교원단체가 반복해 요구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사에게 생활지도 책임만 지울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지도 행위를 보호하고 학교가 문제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국 단위 조직을 만드는 대신 소규모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되고 있으며, 조직 신설이 어려울 경우 담당 인력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교육부가 전담 기능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교권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교육당국이 읽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학교 밖 '참교육'이 통쾌하게 소비되기 전에 학교 안에서 문제를 제때 막고 바로잡을 힘을 회복해야 한다. 교사에게 책임만 묻고 권한은 주지 않는 구조, 피해자가 보호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절차, 학교가 민원과 소송 앞에서 물러서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참교육'은 현실 교육에 대한 가장 뼈아픈 풍자로 남을 것이다.

/l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9일 (음 5월 1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집안에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60년생 현재의 바라는 것은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72년생 다투면 서로간에 이익이 없겠습니다. 84년생 여행을 떠났던 길입니다.



49년생 여기저기서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61년생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73년생 뜻한 바대로 착실하게 살아가세요. 85년생 사업을 너무 크게만 벌려고 하지 마세요.



50년생 계획한 뜻을 굽히지 마세요. 62년생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74년생 능력과 실력이 안정될 것입니다. 86년생 좋은 선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51년생 실행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63년생 타인이 나를 가까이 도와 주려고 합니다. 75년생 주위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하세요. 87년생 더욱 의욕적으로 일에 임하세요.



52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유희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6년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88년생 정신적인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53년생 꿈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65년생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77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 나쁜 일을 면할 것입니다. 89년생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5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6년생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습니다. 78년생 바라는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90년생 뒷사람을 잘 따라야 합니다.



55년생 뒷물이 많으면 앞물이 맑습니다. 67년생 비교적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79년생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 지겠습니다. 91년생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56년생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68년생 짝퉁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80년생 술자리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애정운이 더욱 길합니다.



57년생 어려운 임무를 새롭게 맞게 됩니다. 69년생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81년생 좋은 결실이 맺어질 때입니다. 93년생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시기입니다.



58년생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70년생 명예와 부가 함께 따르게 될 것입니다. 82년생 자만하지만 않으면 탄탄대로 이겠습니다. 94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잘 이겨냅니다.



59년생 병이 들면 치료하기가 어렵겠습니다. 71년생 병들기 전에 미리 건강을 지키세요. 83년생 고생 끝에 반드시 낙이 온다 했습니다. 95년생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김상회의四季 진정한 승리

'피로스의 승리'라는 것이 있다. 승리는 했으나 너무나 큰 희생을 초래하였기에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말할 때 쓰는 경우다. 고대 그리스의 한 작은 나라였던 에페이로스 왕국의 왕이었던 피로스가 기원전 279년 아스쿨룸 전투에서 로마인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그는 힘겹게 승리는 하였으나 자신의 군대를 크게 잃어 결국 더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물러난다. 승리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 결국에는 패배를 안길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 로마는 비록 전쟁에서 지기는 하였으나 피로스왕에 비해 역량이 남아있었기에 전쟁으로 인한 손해를 감당할 수 있었다. 졌지만 회복이 가능했던 얘기다.

이런 면에서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말하길, "천하가 어지러울 때 5만을 싸워 이긴 나라는 결국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고, 4만 만에 이긴 나라는 피폐해질 것이며, 3만 만에 이긴 나라는 패자(霸者)가 되고, 2만 만에 이긴 나라는 왕(王)이 될 것이며, 한 번에 이긴 나라는 황제(帝)가 되리" 라고 했다. 여러 번 이겨서 천하를 손에 넣은 자는 드물고 오히려 망한 자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드는 비용이 엄청나서 물질적 고갈은 그렇다치고 소중한 인명이 살상되니 인적 손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손자는 또 한 번 강조하기를 "백 번 싸워서 백 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므로 최상은 병력으로 적의 싸우려는 의도 자체를 깨는 것이고, 다음은 적의 외교를 깨는 것이고, 그다음은 적의 병사를 깨는 것이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최악이다." 외화내인의 우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니 주역에서는 이를 일러 '화산려(火山旅)'라 하였다.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를 경계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각각씩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8		5		4	2
2	4	3		8			
			2				
		2			6		7
	1					6	
5		1				9	
				3			
			4		1	8	2
2	5		9		7	4	3

2		6		1	5		9	8
			1	9				
			2	4		1		
6				7	8			
			8	6	4			
			6	2				7
		5		8	1			
				5	9			
8	2		4	3		6		1

6	7	2	1	6	9	9	2	8
2	8	1	9	7	5	2	8	6
9	6	8	2	7	9	2	1	
7	8	6	2	8	1	9	9	
8	9	2	5	2	6	1	7	
2	9	9	7	1	6	2	8	8
6	1	8	8	9	2	7	5	2
9	2	9	6	8	1	8	7	2
1	2	7	2	5	8	6	9	

1	9	9	2	8	7	6	2	8
2	8	8	6	9	2	7	9	1
9	2	2	1	8	6	9	7	8
2	7	6	8	2	9	8	1	9
6	1	9	7	9	8	2	8	2
7	2	8	8	2	9	1	6	9
8	8	1	9	7	2	2	9	6
9	9	2	2	6	1	8	8	7
8	6	7	5	1	8	9	2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4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K-바이오 랩허브 조감도.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 하반기 'K-바이오 랩허브' 착공

행정절차 마무리... 2028년 준공 목표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추진 중인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이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부지에 총건축비 930억 원으로 국가 바이오 창업지원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연구장비 구입비용은 국비로, 건축비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부담하고, 부지는 연세대학교 무상제공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8년 말 준공이 목표다.

본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등 필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 및 사업비의 적정성이 확보됨

에 따라 본격적인 착공 준비 중이다.

이울러 중기부, 인천경제청, 연세대학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사업이 매우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며 운영체계 역시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사업단에서 지역 기반의 운영 준비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시범 사업을 통해 선정된 바이오 스타트업기업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임시공간에서 연구·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랩허브 준공 시 단계적으로 입주 및 연구 장비 활용지원과 아울러 유세포 분리기 등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준비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정책제안 듣는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직접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장을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순차적으로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9일 북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서울교육+플러스 교육지원청 학부모공론장'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론장은 서울교육 학부모동행단을 중심으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한 차

씩 열린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100~15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지역 교육 현안을 두고 토론한다. 공론장은 전문가 발제, 원탁 토론, 토론 결과 공유, 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등으로 120분 이상 운영된다.

올해 첫 공론장은 29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고려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다.

/이현진 기자

파주시, '올곡 코드' 운영

파주시가 오는 10월까지 파주 이이 유적에서 올곡 이이와 신사임당의 삶을 교육·문화 콘텐츠로 풀어낸 '올곡 코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이 공모한 '2026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파주시는 역사적 인물의 삶과 가르침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요리, 맛글씨, 공연, 모바일 임무 수행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가 신청과 세부 일정은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또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경)=안정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3 | 해질 / 19:57

6월 29일 (월) 음력: 5월 15일

수도권 날씨 21 ~ 3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연천	19/31
동두천	19/31
가평	18/31
파주	19/31
서울	21/32
양평	20/31
인천	20/29
수원	20/31
용인	20/31
평택	19/31
백령도	19/25

의대 수시 '1등급' 경쟁 현실화 합격·탈락 예측 더 어려워진다

종로학원 2026학년도 입시 분석 31개 대학 합격선 1등급 초반대 5등급 전환시 변별력 약화 우려

2026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되면 의대 수시전형에서 전과목 1등급을 받고도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6학년도 전국 의대 일반전형 최종등록자 70%컷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교과전형 합격 점수를 공개한 32개 대학 중 31개 대학의 합격선이 1.45등급 이내였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6개 대학은 1.0등급이었다. 이번 분석은 고른기회 등 특별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 기준이다.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학생부교과전형 합격 점수를 공개한 대학은 32개교로, 이 가운데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경희대, 인하대, 아주대 등 6개 대학은 최종등록자 70%컷이 1.0등급이었다. 공개 대학 기준 18.8%다. 이는

최종등록자 70% 지점까지 합격권이 내신 1.0등급 수준에서 형성됐다는 뜻으로, 종로학원은 현행 9등급 체제에서도 이들 대학은 내신 등급만으로 변별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은 대부분 1등급대 초반에 몰려 있었다. 구간별로는 1.02~1.09등급 5개교, 1.11~1.15등급 7개교, 1.16~1.19등급 4개교, 1.20~1.28등급 4개교, 1.30~1.45등급 5개교였고, 1.45등급을 벗어난 대학은 1.53등급 1개교에 그쳤다.

종로학원은 현행 9등급제에서 1.45등급 이내 성적은 2028학년도 5등급제 전환 이후 전과목 1등급으로 묶일 수 있는 구간으로 봤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을 공개한 의대 32개교 중 31개교에서 전과목 1등급으로 묶이는 지원자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학생부종합전형도 합격선이 내신 최상위권에 몰려 있었다. 합격 점수를 공개한 32개 대학 중 1.05~1.07등급은 2개교, 1.10~1.14등급은 3개교, 1.15~1.17

등급은 4개교, 1.22~1.29등급은 6개교, 1.30~1.45등급은 5개교였다. 1.45등급 이내 대학은 모두 20개교로, 공개 대학의 62.5%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외에도 학생부 기록과 면접, 서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다만 합격권 내신이 1등급대에 집중된 만큼 5등급제 전환 이후에는 내신 등급만으로 지원자를 구분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류와 면접 등 대학별 평가 요소의 영향이 커지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과목 1등급을 받고도 합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5등급제 전환 이후 의대 수시에서는 전과목 1등급 동점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며 "내신 최고등급을 받고도 입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과 탈락 원인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입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G3 서울 기획위원회' 본격 활동

민선 9기 시정 운영계획 마련 김병민·이창무 공동위원장 체제

서울시가 민선9기 시정 운영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회는 약 70일간 주거, 교통, 청년, 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한 뒤 오는 9월 'G3 서울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G3 서울플랜'은 민선9기 서울시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담은 종합계획이다. 'Global Top 3 도시'를 뜻하는 G3를 내걸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략목표와 핵심과제, 실행계획을 담는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미래 비전과 성장



서울시청 전경.

전략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과 제도로 연결해 'G3 서울플랜'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위원장은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는다. 김 전 부시장은 시정 운영 경험을, 이 교수는 도시정책 전문성을 바

탕으로 위원회 논의를 조정한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약 95명이 참여한다. 운영 체계는 7개 분야별 분과와 3개 특별분과 등 총 10개 분과로 구성된다.

7개 분야별 분과는 ▲건강활력도시 ▲주거안정도시 ▲교통혁신도시 ▲미래경제도시 ▲동행성장도시 ▲글로벌매력도시 ▲안전환경도시다. 각 분과는 분야별 정책목표와 핵심과제,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3개 특별분과는 ▲비전총괄분과 ▲청년특별분과 ▲균형발전특별분과로 운영된다. 비전총괄분과는 전체 전략체계를 조정하고, 청년특별분과는 주거·일자리·AI·고립 해소 등 청년 관련 의제를 다룬다. 균형발전특별분과는 강남북 균형발전 관련 사업체계와 추진전략을 검토한다.

/이현진 기자

대교협, 내달 '수시 대학입정보 박람회' 개최

서울 코엑스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

수시모집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대학별 전형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입 박람회가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주요 150개 대학이 참여해 수시모집 전형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에는 대입상담교사단이 참여하는 '1대1 대입 대면 상담관'도 운영된다. 학생들은 대학별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교사에게 지원전략 등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는 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챗봇 서비스를 대국민 대상으로 시범 개통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대학별 입학전형 운영 방법, 전형 일정, 입시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성적이나 관심 분야 등을 입력하면 대학, 학과, 전형 추천도 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호르무즈 통제권 갈등에 휴전 위태... 美 "국가 존속 못할 것"
- ▲이란 외무부 "美 공격은 휴전 합의 위반...침략에 맞서 주권·영토 보전할 것"



- ▲트럼프 "美 독립기념일, 워싱턴 상공 10시간 이상 에어쇼"
- ▲한국이 만든 페루 스마트도로 청사진, 페루 국가 법정계획 됐다

- ▲일본 이와테현서 규모 6.1 지진... "쓰나미 우려 없어"
- ▲국제수도경찰협의체 출범... 7개국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소주스토리
한국 대표할
'K-소주' 만든다
니



Life

에이피알
美 매출 250%↑
뷰티테크 확장
L2



갓 썬 떡으로 건넌 온기... “정직함으로 최고의 떡 만들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호랭이떡방 노현기 대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어린 시절부터 들던 대표적인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호랑이가 어머니에게 하는 대사다. 그만큼 떡은 우리 생활에서 익숙한 음식이었다. 하지만 ‘맛있는’ 떡집을 찾는 건 왜인지 입소문을 타야할 것 같다. 여기 ‘호랭이떡방’ 이야말로 그렇게 15년간 한 자리에서 입소문을 탄 곳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떡을 주문하는 곳이니 말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는 떡을 모두 받아먹고 어머니까지 잡아먹었지만, 여기 등장하는 호랑이는 맛있는 떡을 준다. 노현기 호랭이떡방 대표가 밝히는 모토는 ‘정직한 사람들이 건강한 재료로 만든 최고의 떡’이다. 건강한 재료로 정성을 다한 떡이라 그런지, 그만큼 좋은 반응이 올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따끈할 때 먹을 수 있는 ‘즉석떡’... “재료가 최상을 쓴다”는 자신감

고려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한 노현기 대표는 첫 직장으로 OB맥주를 선택했다. 7년 정도 주류회사를 다니다가 과감하게 외국계 보험회사로 이직했다. 그렇게 또 12년이 지났고, 이번엔 배우자와 함께 다른 일에 도전했다. 2~3년간 노 대표와 배우자는 떡집을 차리기 위해 공부를 했다고 한다. 노 대표는 “아내가 5개월간 매주 열심히 배워 한식조리자격증을 뒀다. 아내는 떡의 맛을 느끼거나 표현을 잘 하는 쪽에 장점이 있다”며 “저는 영업과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를 맡은 셈이다.

노 대표가 꼽은 호랭이떡방의 장점은 ‘즉석떡’이다. 보통 떡은 며칠 전 미리 주문하고, 새벽에 만들어둔 것을 가져간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도 맛있지만 ‘갓 만든’ 따끈한 떡의 맛을 전하고 싶었던 노 대표는 ‘즉석떡’을 만들었다고 한다.

노 대표는 “지금 바로 전화해서 ‘호두설기 한판 해주세요’ 하면 동시에 시투에 재료를 깔



노현기 대표가 밝힌 떡집 모토는 ‘정직한 사람들이 건강한 재료로 만든 최고의 떡’이다. /서예진 기자



15년간 입소문으로 이어온 떡 맛집 정직하고 건강한 재료가 떡집 ‘모토’

주류, 보험회사 거쳐 배우자와 창업
시루떡·설기 등 갓 만든 즉석떡 장점
신동진살, 소금 등 최상의 재료 고집

시그니처 제품 ‘현미호랭이떡’ 인기
답례떡, 이바지떡으로 단골고객 늘어

지역 푸드뱅크 등에 떡 기부 활동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 꿈꿔

고 스팀에 올려서 바로 썬 것”이라며 “30분 안에 가장 뜨끈한 떡을 바로 들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독특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들이 와서 원할 때 원하는 떡을 정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호랭이떡방에서는 생호박시루떡, 모듬설기, 호두설기 등 8가지의 즉석떡을 판다. 노 대표는 “배고플 때 먹으면 뭐든지 맛있지만, 뜨끈할 때 먹는 떡은 특히 겨울에 최고 아니겠나”라며 웃었다.

특이하게도 호랭이떡방은 주5일제로, 주말에 열지 않는다. 보통 주말에 떡 주문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말이다. 노 대표는 “예전엔 주말에도 (영업을) 했지만, 그러다보니 몸이 안 좋아졌다”며 “이미 평일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매일 최소 3~4명이 매장 근무를 할 수 있으니 고용적인 면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재료를 가장 좋은 것으로 쓰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지금도 바로 도정한 신동진살을 쓰고 신안에서 직접 소금을 사오는 등 재료 구입에 상당한 비용을 쓰고 있다. 노 대표는 “처음부터 재료를 최상으로 쓴다”며 “이 부분은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랑이도 탐낼 ‘현미호랭이떡’... “고객이 잘 먹었다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해”

호랭이떡방의 또 다른 특징은 ‘현미호랭이떡’이라는 시그니처 제품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나오는 ‘호랭이’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그 호랑이가 맞다. 노 대표의 고향인 전북 임실의 정미소에서 온 현미잡쌀을 빙고, 제주도에서 온 참죽을 버무린 것에 팥앙금을 넣은 떡이다. 이 정도 떡이라면 호랑이도 탐낼 것 같았다.

이 떡은 상당히 귀하다. 모든 직원들이 동원돼 직접 손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노 대표는 “하루에 200~300개 정도 만들어서 전량 판매한다”며 “프리미엄 떡으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상표도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게를 방문하자 직원들이 모두 손으로 현미호랭이떡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노 대표는 “처음엔 시청 공무원들이 답례떡 주문이 많았는데, 이게 100개가 나가면 고객이 100명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개인이 떡을 주문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답례떡을) 한번 먹을 때 맛이나 스타커 문구가 기억에 남는다면 떡을 받은 100명 중 2~3명이 주문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람들이 단골이 되는 과정이 세월이 지나면서 누적된 것”이라며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도 추천하고 소개해준 덕에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오는 7월은 노 대표가 ‘호랭이떡방’을 연지 만 15년이 되는 달이다. 15년간 가장 보람있던 때를 골라달라고 하자, 노 대표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어도 고객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좀 그런데, 고객들이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신부 측이 신랑 측 집으로 보내는 이바지떡을 주문받았는데, 신랑 측에서 ‘이 떡이 너무 맛있는데 주문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노 대표는 “떡을 했는데, 받은 사람과 해준 사람이 모두 좋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설명했다. 또 “아토피 있는 애들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엄마들이 좋아할 때가 기뻐다”고 했다. 아마 좋은 재료를 써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이렇게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에 돌려주고자 많은 활동을 한다. 푸드뱅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떡을 기부·찬조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온 것이다. 노 대표는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꿈꾸자는 게 제 모토”라며 지역 활동의 동기를 전했다.

노 대표는 강원 홍천의 생산시설을 확충해 앞으로 사업을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큰딸과 함께 배운 캘리그래피 작품을 전시하고 떡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떡카페도 꿈꾸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떡매 치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도 볼 수 있도록 (떡카페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노현기 호랭이떡방 대표가 답례떡, 이바지떡 등 다양한 떡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호랭이떡방의 시그니처 제품 ‘현미호랭이떡’.



호랭이떡방의 시그니처 제품 ‘현미호랭이떡’.



▲“홍명보 사퇴는 당연, 어떻게 책임질 건가” 거세지는 팬들 분노
▲홍명보호는 탈락했지만...북중미 대회, 내일부터 32강 시작 /사진 뉴시스

▲오스트리아, 알제리와 비겨...‘32강 좌절’ 한국, 월드컵 최종 34위
▲“이번 월드컵은 재앙” 이란 공격수 타레미, FIFA 작심 비판

▲“너 때문이야”...한국 탈락에 팬들 우즈베크 선수 SNS 공격
▲이정후·김하성, ‘코리안 더비’ 이틀 연속 나란히 무안타 침묵

AI·BIO 융합기술로 건강한 미래의 답을 찾다

LG는 AI와 BIO기술의 융합을 통해 암,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병의
정밀진단과 신약개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A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